

# 봄시즌, 사천 벚꽃 힐링 관광지로 각광



사천시가 설레는 봄이 왔음을 알리는 전령사, 벚꽃이 만개하면서 전국의 상춘객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다. 26일 사천시에 따르면 예전보다 포근한 날씨로 지난해보다 개화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사천시청 광장, 선진리성, 실안해안도로 서포해안도로 등 사천시 벚꽃 명소가 분홍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다. 아이들과 가족끼리, 친구들과 손잡고 소소한 얘기를 나누며 여유롭게

가닐기 좋은 사천시청 광장은 따뜻한 햇볕과 봄바람도 덩으로 받을 수 있는 벚꽃 명소 중 한 곳이다. 그리고 선진리성 벚꽃을 따라 올 벚꽃 명소는 없을 듯하다. 입구부터 두 팔 벌려 벚꽃터널을 준비하고 반겨주는 선진리성은 백 년을 넘게 산 벚나무들 군락지를 만날 수 있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3월 27일부터 선진리성 진입로와 주차장 차량통제

가 있을 예정이니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특히 쪽빛 바다와 벚꽃을 동시에 만나고 싶다면 전국 9대 노을 명소로 유명한 실안해안도로와 조용하고 아기자기한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서포해안도로를 방문하면 된다. 전국 최고의 벚꽃 드라이브 코스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 이 밖에 사천시 공식 SNS를 통해 사진과 영상으로도 사천의 봄을 만나

볼 수 있으므로 집에서 즐기는 사천 벚꽃 여행을 떠나 보는 것도 강추한다. 사천시 관광진흥과장은 "벚꽃 명소 방문은 자제해 주시고 방문 시에는 거리두기 유지, 마스크 착용,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사천 벚꽃 명소'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 강민정 의원, 어린이 청소년 신체·정신건강치유·회복을 위한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이 3월 26일 오후 4시 30분부터 '코로나 팬데믹 시기 어린이 청소년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의 손실과 상처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를 통해 생중계하고 일부 방청객 토론회를 Zoom을 통해 초청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강민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자살이 증가하고 우울 지표가 악화됐다"며 "학력을 포함한 여러 교육·사회적 격차가 같이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발생된 어린이·청소년들의 상처와 손실을 현장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들

이 무엇인지 제안을 받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초·중·고 교사 뿐 아니라 특수학급 교사,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교사 등 현장 교사들이 참여해 다양한 교육 현장의 현실에 대해 발제를 진행한다.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를 대표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참여해 해당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신체·정신건강 전문가와 의원들과 함께 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어린이·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 밝혔다.

최광수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 '참여옴부즈만' 16명 신규위촉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감사 옴부즈만의 활동을 지원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을 권익을 보호할 시민참여옴부즈만으로 권회법 노무사, 정순문 변호사,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등 16명을 2021년 3월 16일자로 신규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위촉자들은 임기만료 등으로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16명의 시민참여 옴부즈만의 후임자들이다. 시민감사 옴부즈만위는 지난 2월 18일부터 2월 27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모와 각계의 추천 등을 통해 접수된 67명의 후보자 중 내부심사를 거쳐 16명을 위촉했다. 참여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 가능하고 모두 35명이다. 16명을 신규 위촉하면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는 전문성 강화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참여확대와 양성평등

등의 시책을 고려해 선정했다. 그 결과, 전체 35명의 참여옴부즈만 중 여성이 14명, 만39세 이하 청년은 12명으로 구성했고 전문분야나 경력의 다양성도 고르게 고려해, 변호사와 법무사 등 법률 분야 경력 8명, 세무회계 분야 경력 2명, 토목건축 및 정보처리 등 기술분야 경력 7명, 보건복지 및 여성 분야 경력 6명, 시민사회 경력 5명, 재정·감사 분야 3명, 행정 공무원 경력 4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신규로 위촉된 '참여옴부즈만'에 대해 2021년 3월 24일 위촉장을 수여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소개와 참여옴부즈만의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역할을 등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신규 참여옴부즈만 16명을 대상으로 2021년 3월 24일 09:30부터 11시 30분까지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권익을 보호하기 공공사업감시 활동방법 등에 대해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참여옴부즈만'은 임기제 공무원인 시민감사 옴부즈만과는 달리 비상근 위촉직으로 시민감사 옴부즈만의 업무인 감사 및 고충민원처리, 서울시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20년의 경우 35명의 시민참여옴부즈만은 공공사업 계약자선정과정에 305회 입회했고 공공사업 중점감시 활동에 20회 참여하고 민원배심

에 3차례의 배심원으로 참여했다. 또 7건의 감사 과정을 지원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장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신 많은 분들이 참여옴부즈만 공개 모집과 추천과정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참여옴부즈만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서울시 행정을 개선하는데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코로나 팬데믹 시기

## 어린이 청소년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의 손실과 상처 회복을 위한 토론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상처와 손실, 회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 2021년 3월 26일 오후 4시 30분 ~ 7시 30분  
▶ 강민정TV, zoom(줌)을 통해 참석가능합니다.  
▶ 강민정 국회의원

---

**1부 코로나 팬데믹 시기 학생들의 손실과 상처의 회복을 위한 로드맵**

**좌장**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발제** 초등학교 학생들의 손실과 상처, 회복에 필요한 것들 | 구소희 인촌부내초 교사  
 중학교 학생들의 손실과 상처, 회복에 필요한 것들 | 김대문 목포중앙초 교사  
 고등학교 학생들의 손실과 상처, 회복에 필요한 것들 | 조현서 서울 휘문고 교사

---

**2부 코로나 팬데믹 시기 학생들의 손실과 상처, 회복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좌장** 권주영 서울 노일중 수석교사  
**발제** 특수학급 학생들의 손실과 상처, 회복에 필요한 것들 | 이종필 서울 봉천초 교사  
 다문화 학생들의 손실과 상처, 회복에 필요한 것들 | 박예스더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피관교사  
 교육복지 학생들의 손실과 상처, 회복에 필요한 것들 | 김경아 서울 답십리초 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토론 및 토의**

**좌장**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토론** 조명연 교목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이정연 경기도교육연구원

방청객 토론회를 모집합니다!  
오른쪽 QR코드를 통해 접속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 본 의 | 강민정의원실 02-784-2477



서대구 반도유보라센텀

# 이만희 의원, 농업인재난지원금 포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막판 타결과정 주요 인사 수차례 접촉·설득하며 핵심 역할 수행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25일 오전 '농업인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0.5ha 미만의 토지를 가진 농업인 46만가구에 각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 농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번 추경 예산안의 막판 쟁점이었다.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재원마련 방안이 이견이 보이면서 팽팽히 맞섰고 논의 끝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0.5ha 미만 소농에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고 추가 국제발행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추경안의 농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서 농식품부와 여야 의원들의 중지를 하나로 모았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농연 등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 주도, 국민의힘 농해수위원들과 성명서 발표 등 농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최일선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농업인 재난지원금이 여야 협상의 쟁점으로 떠오르자 24일 밤, 이만희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 등 협상의 키를 쥔 핵심 인사들을 수차례 직접 찾아 논의와 설득작업을 이어갔다.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이번 추경안에는 농업인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농어업인들을 위한 총 2,401억원의 예산이 증액 반영됐다.

농식품부 주요 추경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0.5ha 미만 소농에 재난지원금 1,380억원 코로나 피해목업인 화훼, 친환경, 겨울수박, 딸, 농촌체험휴양마을을 274억원 농번기 아이돌봄방 14억원 등이 반영됐고 해수부는 도서·접경지역 2만 여가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64억원 코로나 양식피해어가 29억원 일반항로 연안여객선사 운항결손금 50억원 등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추경에 농업인 재난지원금이 포함되기까지 정말 많은 고비와 진통이 있었지만,

함께 노력해주시는 농업인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족하지만 뜻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이번 추경 예산이 코로나와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우리 농업은 코로나 피해에 대한 그동안의 현장과 국회 차원의 수차례 요청에도 정부의 지속적인 무시와 홀대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점으로 향후 농업이 생명산업,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위상을 바로세우고 예산과 정책 모든 측면에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영안기자

# 청년세대의 절망...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 故 김성훈 님의 명복을 빌며

故 김성훈 청년의 명복을 빌니다. 며칠 전 잡수교 노란 포스트잇 사연을 보고 가슴 졸이다, 지난 새벽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국회의원으로, 기성세대로서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돌아보게 됩니다. 2019년 10대~30대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었습니다. 특히 20대 사망 원인 절반이 자살로 나타났고, 이는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10월 이뤄진 조사에서는 청년 4명 중 1명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살충동을 느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득이 낮고 미취업 상태일수록 우울증 정도가 심했습니다. 2016년~2019년 국단적 선택을 한 청년 10명 중 3명은 실업 상태였다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일본의 경우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해 2006년 자살대책을 위한 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예방 예산이 약 168억원인 데 반해, 일본은 약 7,900억원으로 47배가량이나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소멸 위기'라고 할 만큼 심각한 저출산을 겪고 있

습니다. 여태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쏟아부은 돈만 200조에 달하는데 인구 자연감소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청년들의 극단적 선택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저출산 예산은 더더욱 아무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사회'가 된 것은 청년 저출산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세대의 절망은 개인과 가족을 넘어 국가적 불행의 시작입니다. 기성세대의 변화와 행동이 절실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청년세대에게 책임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부터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청년들이 젊어지고 있는 집의 무게와 아픔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한편 지난 밤 안타까움에 잠 못 이루면서도, 누리꾼들의 따뜻한 응원과 추모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지닌 연대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6일  
국회의원 이용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

이남출기자

## 신정현 의원, 경기도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 위한 종합안전망 근거 마련한다

### 사회적기업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참여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실현 앞장서 나갈 것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시설관리노동자 등의 인권보호와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조례'의 제정에 나선다.

신정현 의원이 준비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노동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사회적기업에게 맡기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의 노동자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로서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정현 의원은 2018년 8월부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및 청소노동자 근무시설과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꾸준히 정책제안을 해왔다.

또한 2020년 2월부터 경비업과 청소업 등 고령자가 몰리는 직종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토론회 및 정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신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도정질의를 통해 이재명 지사에게 GH 공공임대주택에 경비원과 관리원을 이원화하는 방식의 직무교대제의 우

선적용을 요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신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활성화를 통해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체 간의 부정청탁을 사전에 차단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동시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효과도 거둘수 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련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에 앞장서 늘 우리 곁에서 함께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앞으로 공동주택 내 경비업 및 청소업 등에 집중되는 비정규직 고령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꾸준히 파악해 노동인권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정현 의원은 작년 10월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아파트 공동체의 자발적인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근로환경 개선 등 종합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서 신정현 의원은 3월 30일 화상회의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관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최종적으로 조례안을 가다듬어 다음 4월 제35회 임시회에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최근수기자

## 김병욱 의원,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학술대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6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박상혁, 김용민 국회의원과 한국법정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춘계학술대회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입법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이다.

이행규 한양대학교 교수의 '회사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 '공정경제 관련법 시행에 따른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에 관한 소고',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재검토,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콘텐츠 분쟁의 해결'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주제별로 논의한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한국법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는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성장 속에서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입법정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최근 이슈가 되는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입법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기조발제 부분은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기업들의 조직과 운영에 기준이 되는 독립된 회사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하고 있는데, 저 또한 지난 해 주주 중심의 주주총회, 합리적 기업 지배구조를 정립해 주주와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독립된 상장회사법'을 대표발의 한 만큼, 논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올해 7월 초,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지향적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업계,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고 정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최광수기자

시간	발표자	주제	사회자	토론자
기조발제 14:00-14:30	이행규 교수 (한양대학교)	회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제1주제 14:30-15:10	박상혁 교수 (경북대학교)	전동킥보드 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	김성훈 교수 (경북대학교)	정영우 교수 (한양대학교)
제2주제 15:10-15:30	김용민 교수 (한양대학교)	최근 공정경제 관련법 시행에 따른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에 관한 소고	유정희 교수 (고려대학교)	권재원 교수 (한양대학교)
제3주제 15:30-16:10	이재명 교수 (한양대학교)	콘텐츠 분쟁에 대한 법적 고찰	정영우 교수 (한양대학교)	송준진 교수 (한양대학교)
제4주제 16:30-17:30	오현석 교수 (경북대학교)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콘텐츠 분쟁의 해결	김성훈 교수 (경북대학교)	이영희 교수 (한양대학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 편집인: 최수진 / 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가50146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편집국: 02) 2612-2959 팩스: 02) 2060-4147 구독신청, 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도민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  
경기도의회가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 이재명, 전 구간 개통 하루 앞둔 하남선 최종 점검... "이용편의 증진에 적극 힘써야"

## 천호역 환승 시 서울도심 잠실역까지 30분 내, 강남역까지 50분 내 진입 가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오전 전 구간 개통을 하루 앞둔 하남선을 시승, "하남선 전 구간 개통으로 하남시가 교통의 핵심 요지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힘써달라"고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본격적인 개통 전 최종 점검 차원에서 마련된 이 자리에는 김상호 하남시장,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최종윤 국회의원, 주민규·김진일 도의원,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이 함께했다.

시승은 하남검단산역에서 열차에 탑승해 하남시정역을 지나 하남풍산역에서 하차하는 식으로 진행됐으며 이 지사는 역내 편의 시설, 승차감 등을 면밀히 살폈다. '하남선'은 기존 5호선 종착역인 서울 상일동역에서부터 강일역, 미사역, 하남풍산역, 하남시정

역을 거쳐 하남 창우동 하남검단산역까지 총 7.7km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27일 아침 첫차를 기점으로 전 구간 운행을 시작한다.

차량은 8량 1편성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10분 내외, 평시에는 12~24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표정 속도는 시속 약 40km이다.

운행시간은 하남검단산역 평일 출발 기준으로 오전 5시 30분부터 도착 기준 다음날 오전 00시 06분까지 운행할 예정이며 기본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일반 1,250원, 청소년 720원, 어린이 450원이다.

하남검단산역을 기준으로 서울 상일동까지 10분이 소요되고 천호역에서 환승 시 서울 도심인 잠실역까지는 30분 내, 강남역까지는 5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해 지는 등 도민들의 출퇴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 단위 광역지자체가 주체가 돼 발주부터 공사까지 도맡아 추진하는 광역철도사업은 이번 하남선이 첫 사례"며 "향후 역사를 주변지역과 연계해 랜드마크

# 정현복 광양시장, 읍면동장 회의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강조

광양시는 지난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현복 광양시장 주재로 국·시장과 읍·면·동장 연석회의를 열고 시 현안과 읍면동 일선 행정의 우수시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시장은 농어민 공익수당 상품권 배부 철저 건기 활성화 워크숍 열린지 운영 꽃잔디 식재·보식 후 사후관리 철저 가로·보안·공원 등 간편 고장신고 안내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추진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 등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봄철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산불 예찰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재정 신속집행 추진,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꽃과 숲이 어우러진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요 도로변, 공한지 등에 꽃길 꽃동산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읍·면·동은 시정의 근본이므로 읍·면·동장부터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에 전달해 시책을 일선 행정에 반영하는 도전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본청과 읍·면·동의 밀도 있는 협업행정을 위해 다양한 주제로 읍·면·동장과의 연석회의를 지속해서 운영할 방침이다.



조기석/기자

최근수/기자

# 윤화섭 시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만나 외국인 코로나19 방역관리 논의

## 윤화섭 시장 "법무부와 협력해 외국인 방역관리 모범사례 만들 것"

윤화섭 안산시장은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외국인 코로나19 방역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업체 대표자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윤화섭 시장과 박범계 장관을 비롯해 스마트허브 총무부서장협의회 회장, 업체 관계자, 외국인단체 대표 등 모두 9명이 참석해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화섭 시장은 외국인 노동자 집단감염 등을 막기 위

한 안산시의 방역관리 대책 등을 설명했다.

시는 그동안 외국인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강화국가 입국자 시설격리 의무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전담팀 운영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체계 운영 등 외국인 대상 맞춤형 방역대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외국인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으며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 전수검사를 통해 확진자 42명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사업장 등 지역사회 확산을 사전에 차단했다.

박범계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방문해 방역실태를 점검했으며 이후에는 단원보건소를 찾아가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윤화섭 시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신속항원검사 시행, 주민참여형 상시 방역관리 체계 구축 등 방역상황 조기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외국인 방역관리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K-방역의 표준을 만든다는 자부심을 갖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 대전시, 제8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출범

## 26일 참여단과 허심탄회 가져, 생활속 아이디어 정책제안 역할 수행

허태정 대전시장은 26일 오전 10시에 노루벌직접자생태원에서 제8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임원진과 함께 하는 '허심탄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 해 온라인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중 5개구 임원진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과 7기 대표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로 진행됐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현재 광화문1번가의 소통 창구를 통해 정책참여역할을 하고 있으며 2009년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으로 시작해 2019년 명칭이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으로 변경됐다.

이날 참석한 임원들은 새로운 정

책 제안, 시정 현장 참여, 시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시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을 다짐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한 참여단은 "생활공감정책참여단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8기 참여단에 관심과 적극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허태정 시장은 "참여단이 제안하는 작은 아이디어들이 대전시민의 일상을 바꿀 수 있다"며 "올해도 참여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리며 이를 위해 대전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전년도에 코로나 대응 면마스크 제작·

나눔행사, 자원순환평가 등 시정 현장 참여,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정책제안 등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올해 위촉된 제8기 참여단은 2023년 2월 28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고정화/기자



# 박남춘 시장, "백범 프로젝트-문화재 복원 전폭 지원"

## 26일 중구서 '찾아가는 현장시장살' 감리서터 휴게쉼터 등 방문

박남춘 인천시장의 '찾아가는 현장시장살'이 26일 중구에 등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중구 내동의 '감리서터 휴게쉼터 조성 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했다.

이 사업은 백범 김구 선생이 청년 시절 인천에 남긴 발자취를 재조명하는, 이른바 '백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김구 역사거리와 탐방로의 거점 역할을 하는 휴게공간을 감리서터에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휴게쉼터는 교육과 체험공간을 갖춘 연면적 1,528㎡ 규모로 올해 착공 및 준공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42억원이 투입된다.

이어 박 시장은 인천시 지정 문화재 제17호인 '제물포구락부'와 '한성임시정부 13도 대표자회의 기념표지석'을 잇달아 찾아 각종 복원공사 및 재정비에 앞서 철저한 역사 고증과 시민 여론 수렴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중구는 개항과 독립운동 등 민족의 역사가 곳곳에 스며있는 박물관과 같은 지역"이라며 "이러한 특성을 잘 살려 성장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역사와 함께 살고 계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사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 최용덕 동두천시장, '2021 혁신인물 대상' 지방자치 행정 부문 수상

동두천시 최용덕 시장은 지난 26일 내외뉴스통신 별관에서 열린 '2021 혁신 인물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행정 부문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2021 혁신 인물 대상'은 내외뉴스통신과 NBN시사경제가 창간 9주년을 맞아 지역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우리나라 각 분야 사회주체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한 상이다.

최용덕 시장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경기도 최초 착한일터로 선정되는 등 기부문화 확산하고 경기도 일자리재단 유치 및 동두천시 상권진흥센터 개소를 성공적으로 이뤄냈으며 월드푸드 스트리트, 동두천 자연휴양림과 소요 별&숲 테마파크 등을 개장해,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해 노력해온 점을 인정받아 '2021 혁신 인물 대상' 지방자치 행정 부문에서 수상했다.

최용덕 시장은 "이 상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우리 10만 동두천시민을 대신해 받는 상이라 더욱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뜻을 우선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 금천구 안양천에 텃밭 가꾸는 주말농부 모인다

금천구가 안양천에 주말농부 생태체험 학습장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생태텃밭을 분양한다.

구는 기존 광명시 하안동에 운영하고 있던 금천 친환경 주말농장에 캠핑농장을 조성함에 따라 발생한 분양물량 공급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안양천 독산1동 분수구간 둔치에 약 3,000㎡ 규모의 주말농부 생태체험 학습장을 추가 조성했다.

구는 주말농부 생태체험 학습장에 생태텃밭 250구획을 조성, 금천구민을 대상으로 1가구당 1구획씩 분양한다.

한편 구는 기존 주말농장에 교육텃밭 50구획, 캠핑체험용 텃밭 50구획, 보건소 힐링 텃밭 30구획 총 130구획의 생태텃밭을 조성했다.

교육텃밭 50 구획은 어린이집 및 학교 등 교육기관에 1~2구획씩 분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말농부 생태체험 학습장'에서 가족과 함께 농작물을 가꾸고 수확하는 기쁨을 나누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 강화군 생활체육센터 준공. 군민 품으로

강화군이 도심 속 가까운 곳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기관단체장,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화군 생활체육센터 준공식을 26일 개최했다.

강화군 생활체육센터는 지난해 10월 준공한 신정체육시설 내 여유부지에 23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220㎡의 실내 다목적 체육관으로 건립됐다.

센터 1층 체육관에는 다양한 실내스포츠와 문화행사가 가능한 무대와 시설을 갖추고 에어로빅, 댄스, 문화교실, 실내 구기 종목 스포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2층에는

강화군체육회 사무실이 입주해 생활체육의 총본산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센터가 위치한 신정체육시설에는 야외 물놀이장, 천연잔디 야구 등의 들어서 있으며 주변 녹지 공간에는 계절별 특색을 살린 다양한 수종을 식재해 생활체육을 즐기며 휴식할 수 있도록 했다.

유천호 군수는 "지난해 준공된 신정체육시설과 함께 생활체육센터 준공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스포츠 복지 인프라가 구축됐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도시공원 조성, 문화복합시설 등 가족과 함께 체육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 영등포구, 청년 데이터사이언스 교육으로 빅데이터 전문가 키운다

## 디지털 인재 양성 위한 '청년 데이터 사이언스 빅데이터 분석 초급과정' 운영

영등포구가 4차 산업혁명 및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발맞춘 IT 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 데이터 사이언스 빅데이터 분석 초급과정'을 4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IT 분야의 신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는 정형·비정형 형태의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의미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을 뜻한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 뉴딜'을 핵심사업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비해, 구는 빅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청년들의 IT역량을 강화하고 취·창업성공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교육은 4차 산업 전문교육 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이 주관하며 4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7회 진행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올해는 분석기법의 이해와 계획을 수립하는 이론교육에서부터, 파이썬을 활용한 예제를 실습하는 이론 활용 실습과정과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교육 성취도 평가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세 교육과정으로는 데이터 분석 및 통계 기초, 데이터 분석 기법의 이해, 데이터 분석 활용 및 프로젝트 계획 수립, 프로젝트 수행, 특강 및 프로젝트 결과 발표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모든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수업으로 진행되며 교육 후반부에는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교육 성취도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 우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국경영인인증장상' 시상도 예정되어 있다.

빅데이터 분석 입문수준 이상의 기본지식을 갖춘 만 19세 이상~39세 미만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6일까지 한국경영인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총 24명의 청년을 선착순 모집하

며 영등포에 거주하는 청년 또는 영등포구에서 진행한 교육 수료생을 우선 선발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한 전 교육과정을 ZOOM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에 수강생들은 반드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개인 컴퓨터를 필수 준비해야 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교육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및 일자리 창출 계획에 부합하는 디지털 인재의 육성과 전문지식 함양을 통한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데이터 산업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와 더불어, 이번 교육을 수료한 많은 청년들이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며 활약하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2021년 4.10 ~ 5.29

빅데이터 분석 초급과정

2021. 4. 10 ~ 5. 29

교육목표

- 1. 빅데이터 분석의 개념과 중요성 이해
- 2. 빅데이터 분석의 기초 이론 및 통계 기초
- 3.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 및 프로젝트 계획 수립
- 4. 빅데이터 분석의 결과 발표

교육대상

- 1. 빅데이터 분석 입문수준 이상의 기본지식을 갖춘 만 19세 이상~39세 미만 청년
- 2. 영등포구 거주 청년 또는 영등포구에서 진행한 교육 수료생

교육장소

- 1. 영등포구청 3층 대회의실
- 2. 영등포구청 3층 대회의실
- 3. 영등포구청 3층 대회의실

교육비

- 1. 교육비: 전액 무료
- 2. 교육비: 전액 무료
- 3. 교육비: 전액 무료

문의처

- 1. 영등포구청 기획관리팀 (02-2629-1111)
- 2. 영등포구청 기획관리팀 (02-2629-1111)
- 3. 영등포구청 기획관리팀 (02-2629-1111)

# 연수구, 사회적경제기업

## '체인지업' 경영 특강 실시

### 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성장 기대

연수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체인지업' CEO 특강을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3회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 CEO 특강은 사회적경제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CEO를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초시대를 준비하는 혁신 기업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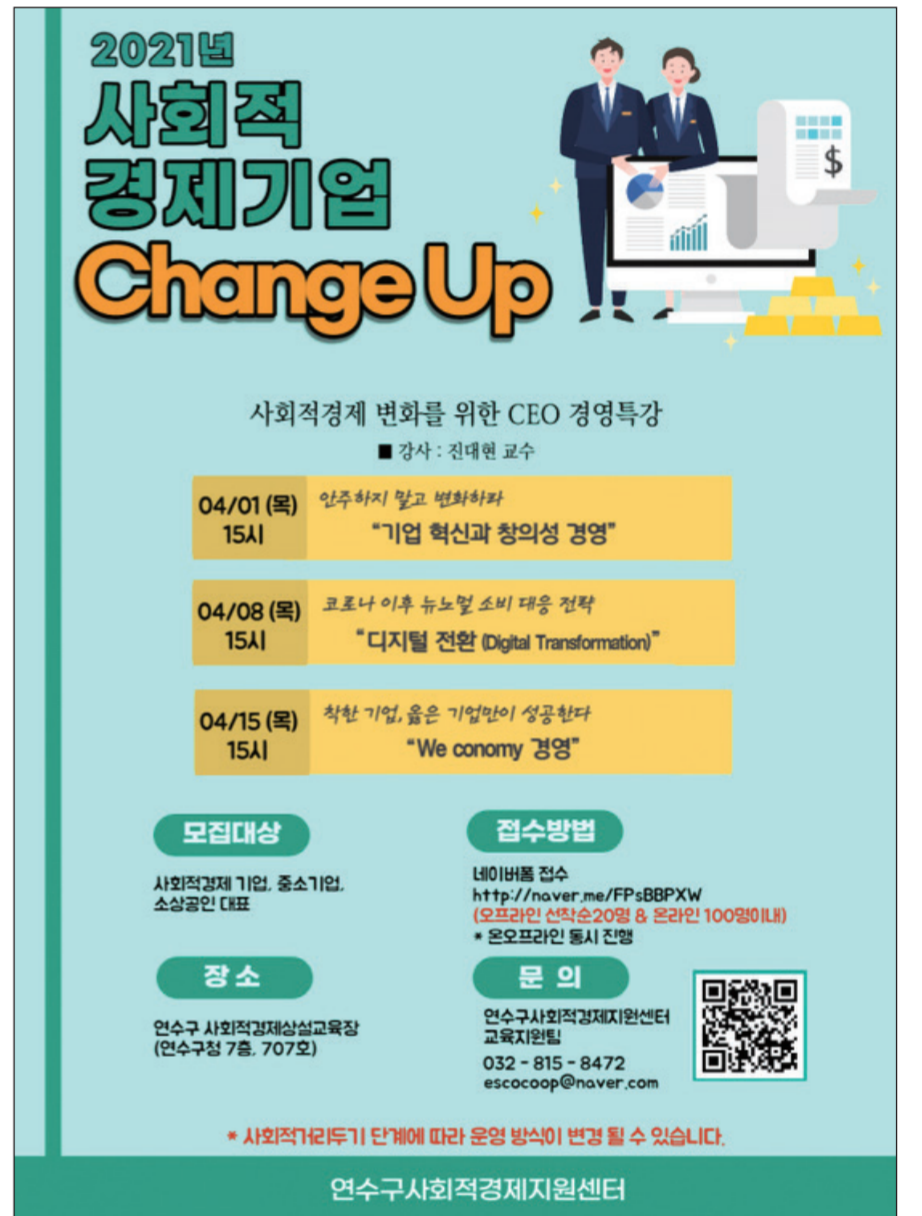
특강은 총 3강으로 다음달 1일 '안주하지 말고 변화하라', 8일 '코로나 이후 뉴노멀 소비 대응 전략', 15일 '착한 기업, 옳은 기업만이 성공한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오는 31일까지 사전접수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수강 문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송현 연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이번 특강은 사회적경제기업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변화와 혁신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CEO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이번 강의가 코로나 이후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Change Up

사회적경제 변화를 위한 CEO 경영특강

강사: 전대연 교수

- 04/01 (목) 15시 안주하지 말고 변화하라 "기업 혁신과 창의성 경영"
- 04/08 (목) 15시 코로나 이후 뉴노멀 소비 대응 전략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 04/15 (목) 15시 착한 기업, 옳은 기업만이 성공한다 "We conomy 경영"

모집대상: 사회적경제 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

접수방법: 네이버를 접수 http://naver.me/FPs8BPXW (온라인 신청소 20명 & 온라인 100명 이내) \*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장소: 연수구 사회적경제상설교육장 (연수구청 7층, 707호)

문의: 연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지원팀 032-815-8472 escocoop@naver.com

\*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운영 방식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연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관악구-서울대 미술관 현대예술문화 온라인 강좌 수강생 모집

## 참여자에게 온라인 URL주소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간편하고 자유롭게 수강

관악구가 오는 4월에 시작되는 서울대 미술관 현대예술문화 온라인 강좌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관악구와 서울대학교의 학·협력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문화예술에 관한 이해도를 높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기실현을 돕는 차별화된 수준 높은 예술문화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코로나, 냉전시대, 인종주의, 전쟁, 난민 위기 등 '예술이 역사와 사회적 위기를 마주하며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해 총 12개 강좌로 구성, 각 주제별로 서울대학교 교수 및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영상을 직접 제작·편집했다.

관악구민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서울대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수강료는 2만원이다.

강의는 오는 4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참여자에게 영상 온라인 URL주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구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자 이번 강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등 꾸준한 학·협력사업을 추진해 평생학습도시 관악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위기 시대의 예술

2021. 4. 1. ~ 6. 17

2021 현대예술문화강좌 1기

- 04.01 12월 12일 - 1945년 12월 12일
- 04.02 12월 12일 - 1945년 12월 12일
- 04.03 12월 12일 - 1945년 12월 12일
- 04.04 12월 12일 - 1945년 12월 12일
- 04.05 12월 12일 - 1945년 12월 12일
- 04.06 12월 12일 - 1945년 12월 12일
- 04.07 12월 12일 - 1945년 12월 12일
- 04.08 12월 12일 - 1945년 12월 12일
- 04.09 12월 12일 - 1945년 12월 12일
- 04.10 12월 12일 - 1945년 12월 12일
- 04.11 12월 12일 - 1945년 12월 12일
- 04.12 12월 12일 - 1945년 12월 12일

관악구 문화체육관광과

서울대학교 미술관

# 인천 최초로 시행하는

## 자동차등록번호 사전예고제

자동차등록번호 사전예고제는 차종, 번호판 종류에 따라 새로 배정되는 자동차등록번호를 100개 단위로 1주일 당 600여개를 구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 하고 원하는 번호 대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동차 명의이전이나 신규 등록 때도 무작위로 추출된 10개 번호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차종은 자가용, 자동차 중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가 대상이며 이용방법은 미추홀구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등록번호 사전예고' 메뉴를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매주 1회 금요일 오후 6시 이후 자료가 새로 게시된 다. 자동차등록번호 사전예고제는 늘어나는 자동차등록번호 관련 문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선호번호가 아닐 경우 불만족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인천 최초로 투명하게 자동차등록번호를 사전 공개하고 배정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ZOOM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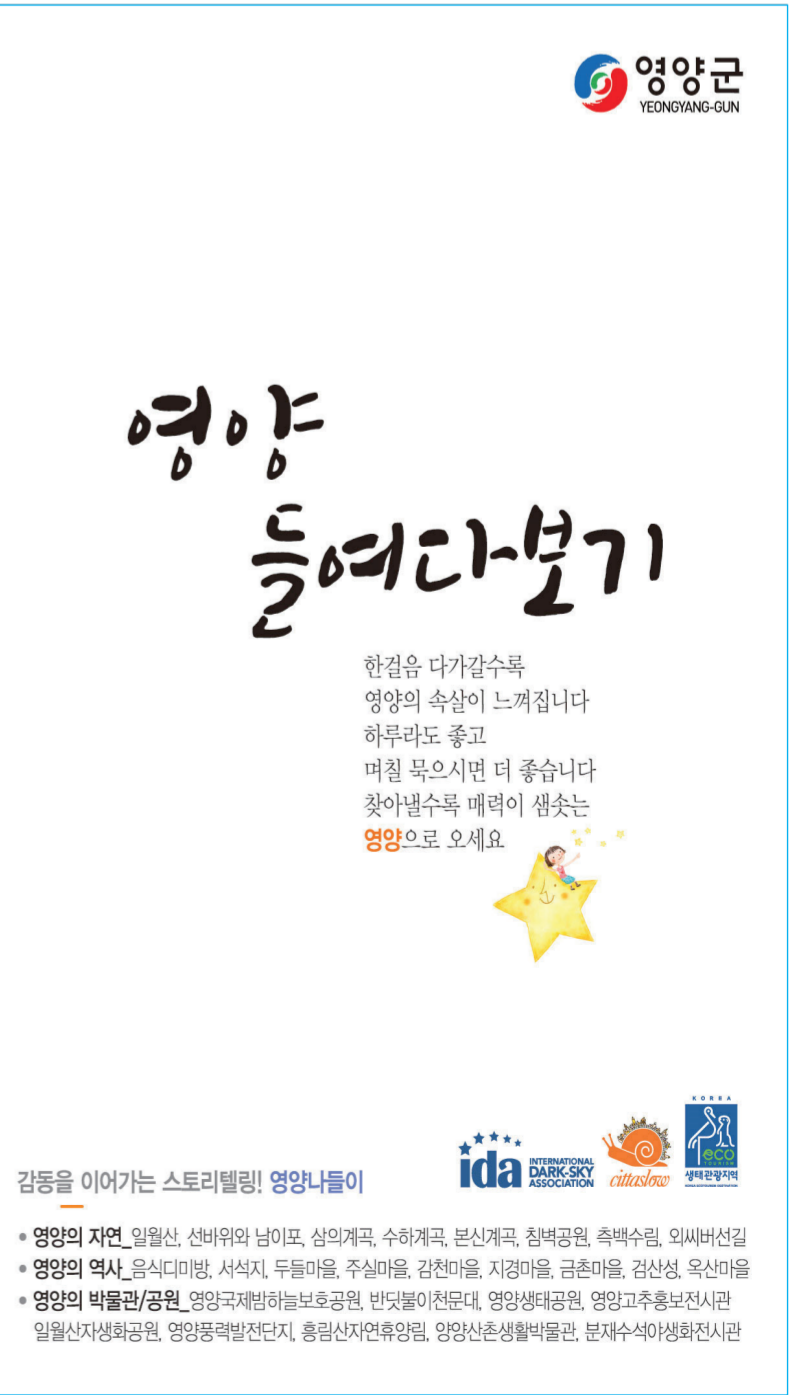
길: 한강변의 푸른 숲과 맑은 강물... 산과 강이 어우러져...

물: 영양의 맑고 깨끗한 물... 맑고 시원한 물이...

빛: 영양의 아름다운 풍경... 푸른 산과 맑은 강이...

맛: 사색이 아름다운 영양... 맛과 멋이 어우러져...

심: 자연과 벗하는 영양... 힐링과 휴식이...



영양 들머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던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영양군 YEONGIANG-GUN

IDA INTERNATIONAL DARK-SKY ASSOCIATION

CITIZENSLAW

영양자연·일월산, 선바위의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산계곡, 참벽공원, 촉백수원, 외씨버선길

영양역사·음식·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심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영양박물관/공원, 영양국립재민하늘보호공원, 반달밭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공력발전단지, 홍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 오산시 새마을회 '코로나19 극복 희망메시지' 캠페인 실시



오산시 새마을회는 25일 8시부터 9시까지 오산역 광장에서 새마을협의회·부녀회 및 새마을교동봉사대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메시지 전달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6일 전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날로 높아져

만 가는 시민들의 피로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코로나19 극복 희망메시지' 전달 캠페인을 실시했다.

새마을회원 60여명은 출근시간 유동인구가 많은 오산역 광장에서 개인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기로 지쳐있는 시민들에

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는 응원의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을 주관한 새마을회 한웅석 회장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백신 접종도 시작을 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지키기를 위해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코로나19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새마을교동봉사대 오산지대도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을 함께 실시해 시너지 효과를 높였다.

김남주기자

# 의왕시, GTX-C노선 의왕역 정차 노력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의왕시-국회의원-현대로템 간 협조로 GTX-C 의왕역 정차 실현 노력

의왕시는 2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의왕역 정차 지원을 위해 김상돈 의왕시장과 이소영 국회의원,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GTX-C노선의 의왕역 정차 필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가진 3개 기관과 협력의지를 다지고 상호간 협력을 통해 업무추진에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3자간 협약서에는 의왕시의 GTX-C노선 의왕역 정차 및 현대로템의 관련사업 진행지원 현대로템의 GTX-C노선의 의왕역 정차를 위한 홍보, 기술지원 등 시 발전을 위한 지원노력 국회의원은 본 협약 이행을 위한 지원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협력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세부사항의 상호 협의가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 효과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의왕시는 관내 첨단철도분야 연구·생산 기업인 현대로템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GTX-C노선의 의왕역 정차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시에서는 그동안 GTX-C노선 의왕역 정차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TF팀 구성, 사전타당성 조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시의 행정력, 현대로템의 첨단기술력, 국회의원의 지원이 결합된다면 의왕역 정차라는 공동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종균기자

# 안성시,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하는 야간 아카데미 개최

"기후위기와 에너지 릴레이 특강, 함께 해요"

안성시는 오는 4월 8일부터 4월 22일까지 3주간 매주 목요일 '기후위기와 에너지'를 주제로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하는 야간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직 내부와 시민이 함께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된 이번 특강은 4월 8일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이사의 '기후위기와 에너지'를 시작으로 4월 15일 박진희 동국대학교 교수와 4월 22일 박준근 한국에너지공단 정책위원이 특강을 이어간다.

이번 특강은 기후위기와 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시는 특강을 통해 기후위기와 국제사회 및 지방정부들의 다양한 대응 사례를 알아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안성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기후위기 극복판에 서 있는 안성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깨끗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안성시 야간아카데미  
:기후위기와 에너지

매 주 목요일 밤 7시-9시

4. 8. (목)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안성맞춤아트홀 소공연장
4.15. (목)	박진희	동국대학교 교수	안성맞춤아트홀 소공연장
4.22. (목)	박준근	한국에너지공단 정책위원	중앙도서관 다목적홀

참여방법 | 선착순 100명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참가인원을 제한합니다)

한 안성을 위해 에너지 전환 방법을 고민하고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 전환 모범도시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야간 아카데미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최근수기자

# 부천시·굿네이버스, 아동친화도시 조성 위한 업무 협약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드림스타트 업무 협약 및 아동정책 이행 서약

부천시는 지난 24일 굿네이버스 경기지역본부와 저소득층 아동의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드림스타트 심리·정서적 도움이 필요한 드림스타트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및 치료 연계,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위기가정 지원, 캠페인 사업 연계, 그 외 지역자원 발굴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활성화 등에 합의했다.

굿네이버스 경기지역본부는 아동과 그 가족의 건강한 변화를 위해 심리치료 서비스 및 가족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며 아동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아동 권리 옹호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0년 아동권리 모니터링사업에 이어 올해에도 40여명의 부천시 아동과 함께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문상록 굿네이버스 경기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내 아동을 위한 심리 지원 및 아동 권리 옹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화복 아동청소년과장은 "드림스타트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협약식을 마친 후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식이 이어졌다.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지난해 8월 정부가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발표한 아동 정책이다.

굿네이버스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아동 권리 모니터링단원과 함께 진행한 정책 이행 촉구 캠페인 '우리는 어른들의 약속을 믿습니다'의 홍보물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박화복 아동청소년과장은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굿네이버스 경기지역 본부가 전달한 1천만원 상당의 쌀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165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동원기자



# 이안 엑소더움 에이펙스

### 광명시, 평생학습을 넘어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UN대학지속가능발전교육거점센터(RCE)인증 추진

#### 광명시 RCE 인증 추진을 위한 첫발, 추진자문단 구성

공공·공정·공감의 가치로 함께 잘 사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향하는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2021년 평생학습의 해를 맞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국제 인증인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센터(RCE)' 인증에 도전한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UN대학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센터(RCE) 인증 추진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자문단은 평생교육, 지속가능발전 분야, 공교육 학교장 등 분야별 전문가와 마을자치센터, 기후에너지센터, 공정무역센터 등 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광명시는 지난해 '광명시 지속가

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비전선포식을 개최한데 이어, 이번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인증으로 지속가능발전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 등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일 계획이다. 강대중 RCE 추진 자문위원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은 "광명시가 이번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센터(RCE) 인증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교육이 활발해져 시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전국 최초의 평생학습을 선언한 도시이며, 특히 올해는 광명시 '평생학습의 해'라고 지정할 만큼 학습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센터(R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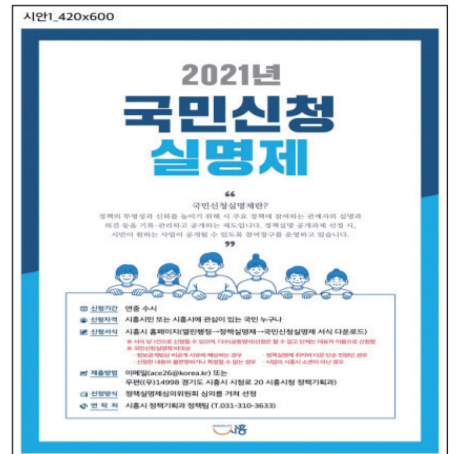
인증까지 추진하게 되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최선을 다해 달려달라 당부했다. 한편 RCE(Regional Center of Expertis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UN

산하기구인 UN대학이 수여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거점센터로서, 현재 국내·외 179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으며, 국내에는 총 6개 도시가 인증도시로서 활동하고 있다. 전순희·원종균/기자

### 시흥시, '국민신청실명제'로 정책투명성 높인다

시흥시는 시민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26일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을 받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계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참여장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별도 신청기간 내 접수하는 방식에서 연중 상시 신청방식으로 확대 시행한다. '국민신청실명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메뉴를 통해 서식을 내려 받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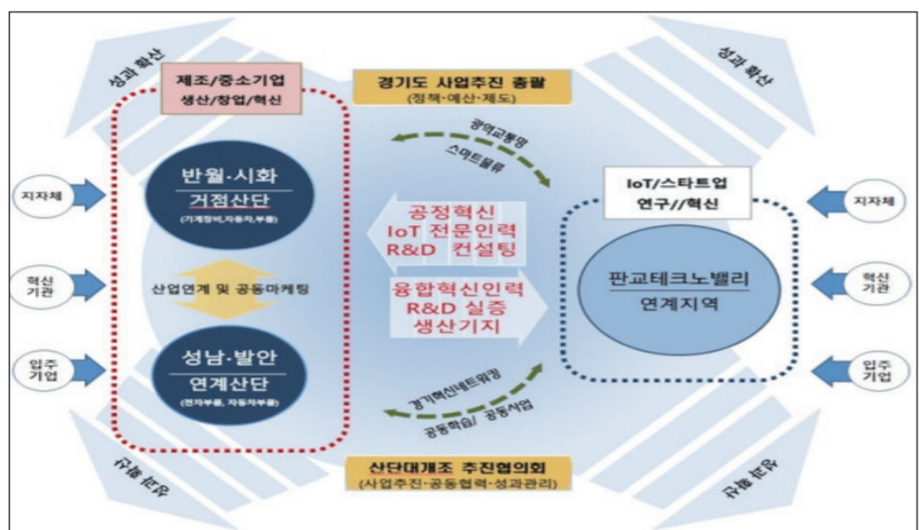
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사업은 분기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시 주요 정책추진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 안산스마트허브, 정부 공모 '산단 대개조 사업'예비 선정

#### 문화협 시장 "기업경쟁력 강화 및 청년 일자리 증가 기대"

안산시는 반월·시화 국가산단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2021년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에 예비 지역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은 2019년 11월 발표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공모사업으로 국내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집중 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신청기관인 광역지자체가 산단과 주변지역을 포함한 산단 대개조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 컨설팅을 거쳐 산단 혁신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정부 7개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올 1월, 모두 8개의 광역지자체가 신청했으나 경기도를 포함한 5개 광역지자체가 예비 선정됐으며 앞으로 세부사업 적정성 검토를 거쳐 올 12월 최종 확정된다. 공모 신청기관인 경기도는 안산스마트허브를 거점산단으로 삼고 화성발안·성남일반산단을 연계산단으로 판교테크노밸리를 연계지역으로 선정했다. 첨단 ICT 융합 소재·부품·장비산



업의 차세대 전진기지를 목표로 디지털 뉴딜을 통한 제조혁신 신산업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촉진 그린뉴딜 및 미래형 산업기반 구축 등 3대 중점 추진분야를 중심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안산시 등 4개 지자체, 지역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산단 대개조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산단 대개조 사업에 선정되면 내년부터 3년간 '소부장' 산업 육성 등 산단 혁신을 위한 국·도비 투자로 소재·부품·장비산업 생산액 5조원 증대, 신규 일자리 1만명 창출, 소부

장 강소기업 99개사가 육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화협 안산시장은 "안산스마트허브가 차세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기업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증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 강소연 구개발특구, 한양대예리카 캠퍼스혁신파크 및 카카오 데이터 센터 유치 등의 사업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산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 양주시, '시민의 소중한 유물 기증받는다'... 유물 기증기탁 운동 전개

양주시는 경기북부 중심도시였던 옛 양주의 위상과 역사·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해 지역 향토역사와 관련된 유물 기증·기탁 운동을 연중 실시한다. 이번 운동은 자발적인 유물 기증·기탁 참여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박물관을 조성하고 기증유물에 대한 보존, 연구, 전시, 교육 등을 통해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문화 융성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기증·기탁 대상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양주의 역사·문화 변천을 담고 있는 모든 유물이나 자료이다. 특히 양주의 역사와 관련된 전적류, 고문서 고지도 등을 비롯한 회암사지 관련 왕실, 불교문화 유물을 우선 기증받을 예정이다. 단, 도난·도굴품 등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 소장 과정이나 소유권의 출처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물, 파손의 정도가 심해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유물 등은 기증·기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물 기증·기탁 신청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누구나 연중 가능하며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기증의사를 밝히면 된다. 소유물을 기증한 기증자에게는 유물의 가치 및 수량 등에 따라 기증증서 발급, 감사패 증정, 박물관 행사

초대, 전시 개최 시 기증유물이 전시될 경우 기증자 이름을 게시하는 등 특전이 제공된다. 기증받은 유물은 박물관 소장품 등록 후 영구 보존돼 박물관 전시, 연구, 교육자료로 활용된다. 중요 유물은 문화재 지정 신청을 추진하고 보존처리가 시급한 문화재는 자체 예산으로 복원·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주시는 서울의 은평구 일부,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중랑구 일대를 비롯해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연천군 일부, 고양시 일부를 아우르는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경기북부 본가로서 경기북부 행정역사의 모태가 된 도시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은릉'을 비롯해, 양주 회암사지, 양주 대모산성, 양주 관아지, 고구려 유적 등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유물의 기증·기탁은 소장자들의 숭결과 훈이 깃들여 있는 귀중한 유산을 보존하고 후대에 값진 문화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문화재 사랑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라며 "문화재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은 지난 2015년 해평윤씨 해안군과 중

중에서 '보도와 옥장식' 2점의 유물을 기탁받아 '월정 윤근수, 외로운 총정 붓으로 남긴 흔적' 특별전시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죽산안씨 집안에서 '안표 초상화 및 교지' 3점을 기증받아 경기도 문화 재 지정을 적극 추진해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 363호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최만식/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전문성 있는 언론인 연수  
언론 조사, 분석, 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뉴스서비스  
뉴스 저작권 보호 및 관리  
과학적인 정부광고 집행  
전 국민 대상의 미디어 교육  
읽기문화 강연회  
소외계층 매체 취재, 제작 지원  
소외계층 신문 구독료 지원

## 언론과 국민을 잇는 이음줄이 있습니다

"신뢰받는 언론, 소통하는 사회, 뉴스생태계 혁신을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 다익은책,지역서점에서 책값50%를 돌려드립니다

## 부산도서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행복한 책 나눔' 사업 추진

부산시 부산도서관은 오는 3월 29일부터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행복한 책나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년까지 시민도서관에서 추진해 왔으나 올해부터 지역대표도서관인 부산도서관이 직접 참여서점을 공개 모집해 25개소로 확대해 추진한다.

'행복한 책 나눔' 사업은 2019년 이후 발행된 도서를 25개 참여서점에 가져가면 도서 정가의 50%를 방문서점의 도서교환권으로 환불받고 교환권 사용을 위해 해당 서점을 다시 방문하면 도서를 할인해주는 사업이다.

수집된 도서는 부산도서관이 구입해 작은도서관과 복지관 등 독서 소

의 시설에 배포한다.

다만, 교환도서에서 참고서 및 학습지, 만화책, 전집도서 2권 이상의 동일도서 오해는 도서 제외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 서점 방문을 유도해 동네서점을 살리고 책도 반값에 할인받을 수 있으며 수집된 도서는 재기증하는 등 도서의 순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 사업을 통해 대형 온라인 서점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을 이용이 늘어나고 수집된 도서는 재기증할 수 있어 책을 통한 나눔 문화의 확산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행복한 책나눔**  
2021년 3월 29일 ~ 예산소진 시까지

다익은책 ~ 50% 상당금액의 방문서점 도서교환권으로 돌려받으세요!  
예) 정가 13,500원 권유 6,800원 보상

수집된 도서는 작은도서관, 복지관, 문화소통계층 등에 기증됩니다.

부산도서관  
library.busan.go.kr  
부산 407 4400000 / 4400000

#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개소식 열려

## 지난해 10월 창원산단 내 조성 완료, 코로나19로 개소식 연기 개최



25일 창원 스마트업타워에서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가 개소식이 열렸다.

혁신센터는 지난해 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돼 10월 창원 스마트산단 내에 조성을 완료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도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운영을 시작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공식 개소식이 이뤄져 오다 이번에 열리게 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김상모 산업부국장, 유준현 한국디자인지역진흥원장, 지역 디자인단체 협회장 등이 참석해 혁신센터 개소를 축하했다.

박종원 경제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지역 기업인들의 오랜 숙원인 디자인지원 기관이 경남도에 개소하게 되어 침체된 경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경남도에서도 경남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와 협업을 통해 디자인이 제조·기술과 융합되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만들어내는 역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는 국비 35억여 원이 투입되어 창원 스마트산단 내 240평 규모로 조성됐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직접 운영하며 국내 디자인분야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있다.

소재·부품 및 제품 디자인 사례를 상설 전시하는 부품소재 라이브러리 3D 프린팅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할 디지털디자인룸 온라인 콘텐츠 홍보를 지원할 스마트스튜디오 등을 운영 중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해 수요기업별, 제품생산 전 주기별 디자인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점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도와 혁신센터는 3월 31일까지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 중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도비 10억원과 국비 10억원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업 디자인경영 상담, 맞춤형 디자인개발,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통한 홍보·마케팅, 기업 CEO 및 실무자 대상 디자인 가치변화 인식교육 등을 지원한다.

최광용기자

# 허성무 창원시장, 이웃사랑 실천 자연유치원 찾아 감사전해

## 경로당 기부 국민포장 수상자 이정숙 원장에게 감사패 수여

창원시는 26일 대구경로당을 건립해 창원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국민포장 수상자 자연유치원 이정숙 원장을 직접 찾아가 감사패를 수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진동면 대구리 386-4번지 대구경로당이 1970년대 판넬건물로 낡고 노후돼 오랫동안 어르신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대구마을회에서 토지를 기부하고 이정숙 원장이 3억 원을 들여 경로당을 건립해 3월 창원시에 무상 기부채납했다.

이정숙 원장은 86세로 그동안 모은 재산을 노년의 어르신들을 위해 뜻깊게 쓰려고 경로당을 건립·기부한데 대해 2017년과 2018년에는 한국국제대학교, 경상대 등에 장학금으로 1억원 상당을, 2019년에는 본인이 설립한 20억원 상당의 보람유치원을 창원교육지원청에 무상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창원시 추천으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제10기 행정안전부 국민추천포상 '국민포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허성무 시장은 "국민포장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불어 함께 나누는 밝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고자 하는 송고한 뜻으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한 이정숙 원장님에게 감사패와 함께 존경과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대구경로당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담소공간이자 소중한 자산으로 길이 남을 것이며 원장님의 뜻을 받들어 서로 나누는 함께 잘 사는 창원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 입암면 새마을회, 봄맞이 환경정화활동 실시

영양군 입암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는 새봄을 맞이해 3월 26일에 자체적으로 관내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40여명의 회원들은 코로나19 방역 및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하천 및 농경지 주변의 생활쓰레기와 폐비닐, 농약병 등을 수거하며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우재운 입암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심신이지친 주민들이 쾌적하게 봄의 여유를 즐겼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깨끗한 내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봄철 농번기의 바쁜시 중에도 참여해 주신 회장님과 회원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영양군을 위해서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주민과 상생협력으로 준공

## 울산시, 주민-관계기관 간 민원 상생협력 통해 해결

북구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빗물펌프장 준공식 개최를 끝으로 모두 준공됐다.

울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26일 오후 6시 송정지구 빗물펌프장 석가산 광장에서 주민과 관계기관과 함께 소통을 통한 갈등 해소와 화합의 상생협력 롤 모델이 된 빗물펌프장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난 2004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2007년 9월 개발계획을 수립해 2007년 12월 실시계획이 승인됐다.

북구 송정동 일대 143만 7,000㎡의 부지에 총 사업비 4,965억원을 투입해 7,817세대, 인구 1만 9,585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됐다.

택지 및 도로 등을 조성하는 1단계 사업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작해 2019년 9월에 준공됐다.

또한 공원과 소하천, 배수펌프장을 조성하는 2단계 사업이 3월 9일자 국토부 준공공고를 끝으로 사업이 마무리 됐다.

이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없었던 빗물펌프장 설치가 추진되자 이를 반대하는 반도유보라 아파트 입주민을 중심으로 한 반대 민원이 택지개발사업 승인 기관인 울산시로 1,500여건이 접수됐다.

김기현기자

# 진주시, '사랑의 그린PC 무상 보급' 신청자 접수

## 중고 PC 정비에 어려운 계층에 무상 보급, 4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받아

진주시는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지역사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2021년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상남도과 진주시가 매년 추진해 오고 있는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은 공공기관에서 기증받은 중고PC를 정비해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으로 정보 취약계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변화된 시대에 온라인 활동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보급되는 컴퓨터 사양은 CPU Core i3이상, HDD 250GB 이상, LCD모니터 19"이상이며 보급받은 컴퓨터는 수리업체를 통해 1년간 무상으로 A/S를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교육정보화사업 등의 무상 PC를 보급받지 않은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정보취약계층과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 아동시설, 노인시설 등 비영리단체다.

신청은 3월 29일부터 4월말까지이며 진주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5월 21일 개별 문자

최광용기자





# 경상북도, 동해안 황금어장 복원 나선다.

## 지역 특화 품종 '줄가자미, 도화새우, 대문어' 연구개발 주력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원은 미래 어업자원 확보와 안정적인 어업 생산성 증진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3대 중점과제를 구상해 지역특화 품종의 연구개발 주력 어업인 선호 고부가 품종 자원화 수산 생명자원 회복 및 산업화 활용연구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어패류 총 8 품종 320만 마리를 자원화 해 동해안 황금어장의 전설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역특화 어종인 '줄가자미' 연구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구원은 2019년 줄가자미 인공종자생산을 국내의 최초로 성공해 새로운 역사를 쓴 이후, 자원회복의 대명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량생산 기술개발 및 어미화 육종으로 완전양식 연구에 매진한다는 후문이다.

대부분 모래지형인 경북연안은 가자미류 서식에 적합한 해양환경으로 국내 가자미류의 60%가 서식하고 있으며 이미 2010년 강도다리를 시작으로 2013년 돌가자미, 2015년 문치가자미 종자 대량생산 기술을 확



보한 바 있다.

또한, 사라져가는 한해성 품종 자원개발 및 보존도 속도를 낸다.

수심 35미터 저층해수를 활용한 대문어 종자생산 연구개발은 국내 첫 생산을 목표로 야심차게 출발해

특히 독도해역 도화새우는 2018년 인공종자 생산에 성공한 이후 대량 종자생산 기술개발을 통한 VIP급 자원증강과 서식장 확대를 위한 노력

이 지난해 11월부터 좋은 결과로 이어져 황금어장 조성에 청신호 단계에 있다.

아울러 지역 연안 해삼 및 개량조개, 쥐노래미 인공종자 자원화, 불락류 4종 번식생태 연구, 가자미류 2종 자원화를 통한 사라져가는 종 자원회복 발굴로 건강한 생태계 유지와 어업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수산 생명자원 회복 및 산

업 활용연구도 과감하게 추진한다.

독도 고유 왕전복 복원사업은 멸종위기시설이 제거된 이후 2015년부터 철저한 유전자 검증 후 자체 생산된 종자를 확보하는데 성공했고 올해부터는 차세대 어미육성을 통한 완전양식시험을 진행한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대량생산에 성공할 시 '독도산' 브랜드를 앞세워 고소득 상품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해 본다.

또한 새로운 양식산업화를 위해 지역 내 생산의 60%이상을 차지하는 강도다리의 3배체 품질개량 연구 및 수정난 지원에 착수해 어업인 생산지원 활동을 더욱 구체화 한다.

이영석 해양수산국장은 "경북 동해안의 100년 먹거리 준비, 수산 스마트양식과 함께 지역 특화 브랜드 연구개발, 지속적인 자원회복 지원 방안을 강화하고 특히 어업인과 소통을 통한 맞춤형 고소득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진들과 전력투구해 동해안 황금어장의 전설이 재현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 남해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

##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인센티브 5000만원

남해군이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받는 쾌거를 달성함으로써, 민원서비스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남해군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 및 기초지자체 등 전국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년간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및 민원처리 성과, 민원 만족도를 점검하는 평가로 남해군은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으면서 전국 군부 중 상위 10%에 올랐다.

남해군은 재정인센티브 5000만원을 민원업무 처리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전 직원이 민원행정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 서비스와 편의시책을 발굴해 군민들이 만족하는 행정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영훈기자



# 주낙영 경주시장, '암곡동 마을안길 확장' 현장 방문

## 주낙영 시장, 바쁜 일정 중에도 보덕동 주요 사업 점검하며 현장소통 행보 이어가

주낙영 경주시장이 민선 7기 공약사업과 주요 시정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 소통의 발걸음을 이어 나가고 있다.

25일 주 시장은 보덕동을 찾아 '암곡동 마을안길 확장'과 '보문관광단지 리모델링', '마이스 산업 육성', '경주 축구 전지훈련 에어돔 조성',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 토지매입 및 무상양여' 등 보덕동의 주요 사업을 직접 점검했다.

보덕동 현장방문에는 경북도의회 박차양 의원, 경주시의회 한영태 의원을 비롯해 주민 대표가 일부 참석했다.

'암곡동 마을안길 확장' 사업은 사업비 2억 7천만원으로 마을 안길 600m 구간을 너비 3.5m에서 5m로 확·포장하는 사업이다.

오는 7월에 착공해 12월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주

민들의 정주여건과 교통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보문관광단지 리모델링' 사업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노후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관광객들에게 각광받는 신규 시설을 조성해 보문관광단지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롭게 조성될 시설에는 총 길이 2.7km에 달하는 루지체험장과 보문호를 가로지르는 1.3km 길이의 짚라인이 포함돼 있어 큰 기대를 자아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7일 경주시청 앞천홀에서 열린 '새바람 행복버스 현장 간담회'에서 '보문관광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주 시장은 "보문관광단지 리모델

링과 화백컨벤션센터 증축, 축구 전지훈련 에어돔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보문관광단지가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는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반식기자



# 위생업소 코로나19 예방. 셀프클린 UP으로 무장

## 4월 부터 경북 우리가게 셀프클린UP 참여업소 모집

경상북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코로나19가 지속 확산에 따라, 민생밀접 다중위생업소 영업주가 생활방역을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우리가게 셀프클린UP'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

우리가게 셀프클린UP을 실시해 영업장의 문을 닫게 하는 강제적 방역에서 벗어나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과 책임의 생활방역을 확산하고 이용객에게는 클린·안심업이라는 신뢰감을 주어 코로나19 예방활동과 경제활동의 조화를 위해 실시한다.

대상 업소는 식품접객업소 3종, 공중위생업소 5종 6만 9천여 개소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우리가게 셀프클린UP' 업소가 지켜야 할 공통 준수사항은 매일 2회 이상 소독 손소독제 상시 비

치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간을 정해 소독·청소·환기 실시 등 4가지이며 업소주도형 생활방역을 실시하는 업소에 영업주 실명 '우리가게 셀프클린UP' 스티커와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쉬운 요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결과는 재확산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그동안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역수칙 준수와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 준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세기기자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 강인규 나주시장, “한전공대 정상개교, 글로벌 에너지 허브도시도약”

## 26일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 환영 입장문 발표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은 26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내년 3월 정상 개교를 통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자 세계적인 공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인규 시장은 이날 시청 이화실에서 한전공대특별법 제정에 대한 환영 입장문 발표하고 “한전공대법 제정을 통해 학교 존립의 항구적 법적 안정과 내년 3월 차질 없는 개교를 담보하게 됐다”며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염원하는 에너지수도 도약에 있어 한 획을 그는 성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12만 시민과 광주·전남 사회단체의 응원과 지지, 특별법을 발의한 신정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준 여·야 정치권과 전라남도, 한전, 도·시의회 등 각계각층의 관심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한전공대와 관련된 각종 현안으로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

이 있었다”며 “공공성 확보를 최우선의 과제로 이 같은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영CC 잔여부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시민의 눈높이와 공공성 확보를 최우선해 나주시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부영과 협상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 16일 산자위 법안 소위에서도 밝혔듯이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라며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등 특혜시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야당의원들이 지적했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교 정원 미달과 관련해서도 “한전공대는 1000명 정원의 에너지공학 단일학부부 기존 대학 교육방식을 뛰어넘는 작지만 강한 산·학·연 대학”이라며 “4차 산업의 선도모형이 되는

세계적 공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대학 정상개교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비롯해 산·학·연 클러스터 및 대형 과학연구랜드마크 조성 등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강 시장은 “세계적 4차산업 흐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80만㎡규모 ‘산·학·연 연구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국가대형연구시설 유치에 지속적으로 도전할 것”이라며 “내년 정상개교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과 캠퍼스 착공은 물론 임시 교사 활용을 대비한 각종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공대가 세계 에너지 중심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전라남도, 한전과 함께 다양한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에너지산업 기반을 확실히 다져 나주가 글로벌 에너지 허브도시로 도약하는데 과감한 준비와 투자를 꾸준히 추진해가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김영만기자

## 완도군 스마트 치유마을 조성사업 순항

### 정주 여건 개선, 관광객·인구 유입, 소득 창출 기대

완도군은 2019년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스마트 치유마을 조성 사업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 20억원을 확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트 치유마을은 군외면 불목리 일원에 조성 중이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정주 생활여건 개선, 숙박시설을 조성해 관광객·인구 유입과 마을 소득 창출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현재 군외면 불목리 일원에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여가, 문화, 공동체 생활 서비스 플랫폼인 스마트센터와 스마트 치유 숙박 시설인 힐링하우스 2동을 조성 중이다.

또한 첨단기술을 활용해 사업 대상지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ICT를 기반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 신고가 되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와 말벗 서비스 구축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아울러 재해나 재난 상황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 복지 및 생활 편의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할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센터와 힐링하우스는 올해 1월에 착공해 상반기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구조물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공정률 50%를 채웠다.

준공 이후에는 체험 콘텐츠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여가 및 문화, 안전 등 서비스

를 제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와 새로운 소득 창출로 마을이 보다 더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영울기자



## 광양시, 변화와 혁신 선도,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집중

### 코로나 이후 일상과 경제 회복 중요, 다양한 정책 선도



## 순창에서 봄 벚꽃 여행 떠나요

### 프랑스 가이드 레아모로와 영어해설로 떠나는 순창만의 특화콘텐츠

매년 4월이면 순창 경천변을 따라 열렸던 벚꽃 축제가 올해 코로나19로 취소됨에 따라 아쉬움이 남았을 관광객에게 이를 달랠 길이 열리게 됐다.

순창군이 다음달 3일 토요일 벚꽃과 연계한 야간 인문학투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레아와 함께 떠나는 순창의 봄’이라는 주제로 운영하는 이번 야간 투어는 벚꽃으로 유명한 향가유원지와 순창읍 경천변 벚꽃길을 프랑스 가이드인 ‘레아모로’와 함께 걷게 된다.

프랑스인 가이드와 함께 벚꽃길을 거닐며 벚꽃의 역사를 주제로 영어해설로 진행되는 예정이어서 한국에서 마치 외국에 와있는 듯한 작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나해부터 지역내 관광코스인 강천산과 체계산을 잇는 풍경버스를 운영하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프랑스인 레아모로가 바라본 순창의 봄과 프랑스 역사 등도 스토리화해

참가자들에게는 유익한 투어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그동안 영어에 관심이 많았던 청소년과 일반인에게 색다른 이벤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벚꽃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말에 단 하루 열리는 이벤트 투어인 만큼 희망하는 사람은 빠른 신청이 요구된다.

모집인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가비는 5,000원이다.

투어버스는 순창전통동추장민속마을을 출발해 향가유원지, 경천변, 푸드사이언스관에 도착하는 코스로 진행되며 저녁 6시 30분부터 밤 9시 30분까지 운행한다.

군 관계자는 “야간 벚꽃 투어의 아름다움과 함께 영어로 이뤄지는 색다른 투어가 될 것”이라며 “특히 관내 영어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광양시가 코로나19 극복과 광양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성과를 하나하나 만들고 있다.

올해는 ‘더 활력있는 지역경제, 더 안전한 도시, 더 밝은 미래’를 시정 3대 목표로 설정해 ‘일자리·지역경제 회복, 미래 신산업과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함께하는 변화 새로운 광양’ 실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양시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며 일거리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지원에 앞장서 왔다.

전남 최초로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했고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융자금 보증수령료 시설개선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했고 전통시장 점포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기에 시의회와 협의해 2차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액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지원 강화광양시는 지난 2002년 11월 전국 최초로 교육환경 개선지원 조례를 제정해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 존중과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시행했으며 올해까지 19년간 총사업비 905억원을 투입해 차별화된 교육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수 중학생 중 최근 5년 평균 83.6%가 지역 내 고교를 선택했으며 주요 대학 합격자 비율도 2018년 14.5%, 작년 16.6%, 올해 19.3%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교육경비 지원과, 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연계 사업 지원을 목표로 64개 사업에 총 67억원을 투자해 지역 인력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양시는 변화하는 관광환경을 선도하는 다각적인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체감하는 지속 가능한 체류형 관광도시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권역별로 핵심 관광기반사업을 조속히 확충할 계획으로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중 5개 교량과 해비치로를 연결하는 야간경관 조명사업이 올해 상반기 내에 마무리되며 달빛해변사업도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구봉산 관광단지는 작년 관광단지 신청요건을 확보한 후 현재 토지매입을 66%가량 완료한 상태로 2024년 말 준공을 목표로 행정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1단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예향 전담을 대표하는 전남도립미술관이 지난 22일 광양에 문을 열었다.

도립미술관 개관으로 도시 품격이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광양 문화예술 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술관은 경전선 폐선부지에 총사업비 414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전시장, 어린이 전시체험실, 관람객 참여형 교육공간 등 다양한 공간을 조성했다.

도립미술관 유치와 연계해 조성한 광양예술창고는 1970년대 건립된 폐창고시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했으며 두 개의 건물로 이뤄져 있다.

광양을 주제로 한 실감영상관과 문화센터, 예술창작소 등 실감 나고 재미있는 스토리를 제공해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넓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선 7기를 맞아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보육 공공성 강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등의 시책을 추진해 작년 보육분야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 19일 개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광양아이키움센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차별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설립된 어린이 보육재단은 정기후원 2만여 계좌를 달성했고 5만 계좌가 달성되면 광양에서 태어난 아이를 ‘시가 책임지고 키우는 시대’가 도래한다.

광양시는 30만 자족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택지개발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세풍과 황금, 익신, 명당 등 산단 조성과 도립미술관 개관, 광양항 활성화 등에 따른 유입인구에 대비해 쾌적한 택지공급과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9개 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학차 공영과 민간개발을 포함한 총 9개 지구 617만 8천㎡에 104,847명을 수용 가능한 택지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2025년까지 완주, 성황·도이, 목성 지구 등 8개 지구의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8만 1천여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젊은 층 수요와 최근 트렌드에 걸맞은 공동주택 공급이 미흡했으나, 올해 2월부터 광영·의암 지구의 924세대 신규 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완주지구와 광양택지구 등 5개 단지에 3,995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시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광양시는 이차전지, 소재부품산업,

드론산업, 수소산업을 대표적인 신산업으로 육성해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올해 2월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공장 4단계 확장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포스코 이차전지 유가금속 추출사업과 리튬 사업이 상반기 내 착공하는 등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실현하고자 한다.

명당산단에는 친환경 이차전지 재활용 기술개발 실증센터를 구축해 소재부품 생산뿐만 아니라 재활용까지 연계해 이차전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광양만권 지식산업센터 시설 계획도 추진한다.

광양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 패러다임을 대대적으로 혁신해 변화하는 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친환경 미래 도시의 위상을 갖추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광양형 뉴딜사업으로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3대 분야에 D.N.A 및 비대면 산업 강화 SOC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 그린 생태계 회복 등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97개 사업을 발굴해 2026년까지 1조 2,45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원복 광양시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는 우리의 대응에 따라 더 나은 미래를 앞당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현재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의 순항에 힘입어, 시민 행복과 미래를 위한 변화·도약을 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석기자

# 머물고 살고 살고 싶은 행복한 전북 조성에 총력

## 인구 정책 민관 위원회 개최... '21년 인구 정책 시행 계획 심의

전라북도가 인구종합대책의 분야별 내실화와 도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

25일 전북도는 인구정책 민관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고자 '21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는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도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에 기반한 '21년 시행계획으로 6대 분야별 주요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인구종합대책 수립 4년 차로 그간의 정책효과를 점검·진단해 사업의 내실화, 정책 체감도 향상, 지속적인 기반구축에 방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추진과제와 사업을 다양화하고 목표를 상향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일자리, 청년수당 지원, 돌봄공동체 지원 등 체감도 높은 정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테마가 있는

경관마를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기반구축을 통해 도내 거점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분야별 주요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동시에 인구정책 브랜드 사업, 인구 관련 인식개선 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구감소 요인 극복 및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대책으로 전북도가 특색있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인구정책 브랜드 사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맞춤형 교육, 인식개선 홍보, 인구정책에 모범적인 협력 기업 및 단체, 개인 등을 발굴해 재정지원 및 포상 방안을 마련하고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전북 직장문화 조성·확산에 주력한다.

또한 인구감소 지역 관련 공모사업 추진 및 적극 대응,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대응에도 집중한다.

아울러 1시군 1특화 인구정책으

로 어르신 친화형 통합돌봄 주거기반 구축, 찾아가는 동네문화 카페 행복학습센터 운영,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등 14개 사업을 시군과 협력해 추진한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청년유출과 관련해 취업 지원 등 강력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며 정주 여건 개선 및 육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의견 등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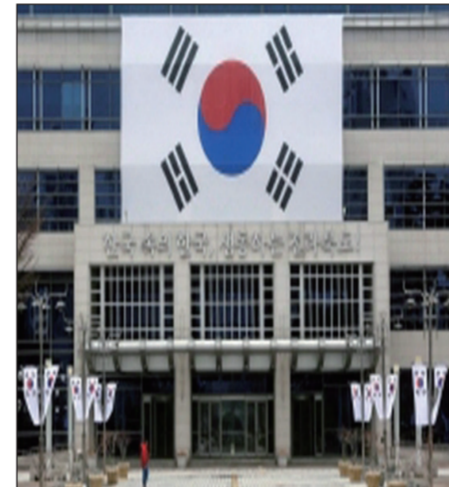
아울러 출산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해 취업·결혼·출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북도는 이날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인구 유입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구정책 민관위원회 위원장인 최훈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는 "작년 말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인 인구감소 추세 속에서 우리

도의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새롭게 출범한 제2기 민관위원회와 함께 '21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 무안군, 200억원 규모 녹색사업 본격 추진

## 남악 모두누리 도시숲 등 14개 분야 사업 시행

무안군이 올해 총사업비 200억원 규모의 산림공원 녹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의 자연을 통한 회복을 위해 산림휴양, 산림조성, 산림보호, 공원녹지의 14개 분야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치유의숲과 산림욕장 등 산림휴양시설 조성, 숲교육 운영, 실내정원과 화산백련지 수목원 조성 등 102억원의 산림휴양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도시숲 조성 6개소, 도시공원 및 소공원 조성, 가로수 사업으로 62억원의 공원녹지 사업을 추진한다.

산림휴양사업과 공원녹지 사업이 완료되면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과 공원녹지 확대로 군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군은 산림을 가꾸고 보호하기 위해 조림 35ha, 벌채 33ha, 숲가꾸기 407ha 등 15억원 규모의 산림조성 사업과 산림사방·침식방지 4

개소, 노거수·보호수 정비 39주, 임도 설치 및 보수 14km 등 21억원 규모의 산림보호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물맞이골 치유의숲과 전남도청 저수지 모두누리 열린숲, 남악 수변공원 미세먼지 차단숲 등이 있으며 이와 함께 화산백련지에 수목원을 건립하고 무안국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제림 조성 29ha, 친환경 벌채 33ha와 해제면 학송리 사방댐 설치, 청계와 현경면 해안 침식방지 사업의 산림 사업도 추진한다.

김산 군수는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군민들에게 위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서비스와 함께 도시숲, 공원 등 접근성 높은 녹색공간을 제공하겠다"며 "올해 추진하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무안을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생태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기석기자

# 완주군의회, 지역발전 촉구 및 미안마 쿠데타 규탄

## 국지도 55호선 소양-동상 도로개량사업 적극 반영 촉구 건의



완주군의회는 11명 의원 전원이 발의한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지도 55호선 소양-동상 도로개량사업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과 '미안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안'을 만장

일치로 채택해 지역발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에 앞장섰다.

서남용 의원은 "소양면 신원리에 서 동상면 사봉리를 연결해주는 국지도 55호선은 오랜 세월 지역주민과 바깥을 연결해주는 소통의 길 역할을 해왔다"며 "그간 도로가 노

후화되고 선형불량으로 주행시 안전에 위협 받고 특히 동절기 강설시 대중교통이 두절되어 지역민의 통행권이 보장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경제논리가 아닌, 도로의 안전성 확보로 국민의 안

전을 위협하고"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서명운동 등을 펼치고 있는 만큼 국지도 55호선 소양-동상 도로개량사업은 주민 숙원으로 정부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에 적극 반영해야한다"며 마무리했다.

이어서 소완섭 의원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미안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동시에 미안마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행사태의 중단과 구금된 정치인 등의 조속한 석방 및 미안마 군부의 즉각적인 민주적 헌정질서로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소 의원은 "미안마 국민들의 저항을 적극 지지하며 미안마 군부의 헌정질서 훼손과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언했으며 미안마 전역에서 군경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유행사태 즉각 중단과 구금된 정치인 및 관계자 등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UN 등 국제기구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공동대응과 협력강화로 미안마 민주주의의 질서회복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미안마의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날까지 완주군의회는 지지보낼 것을 결의했다.

김광수기자

# 남원시립어린이국악단 창단을 위한 단원모집

남원시는 동편제 판소리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의 국악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남원시립어린이국악단을 4월중 공식 창단할 계획으로 단원모집에 나선다.

모집대상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남원시 소재 초·중학교에 재학중인 취학연령의 학생으로 판소리 분야 20명 정도를 선발하게 되며 모집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이다.

4월 10일 실기와 면접심사를 통해 합격자를 결정하게 되며 최종합격자를 13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어린이국악단은 시립국악단 내에 두고 관리교사 책임 아래 주 2회 정기연습과 방학기간 등을 이용한 합동 연습을 실시하는 등 기량을 연마해 연말 정기공연 및 시립국악단의 상설공연 등에 참가하는 것은 물론, 지역축제 등에서 기량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경험과 우수한 기량을 갖춘 시립국악단원과 외부 국악인을 지도교사로 위촉해 국악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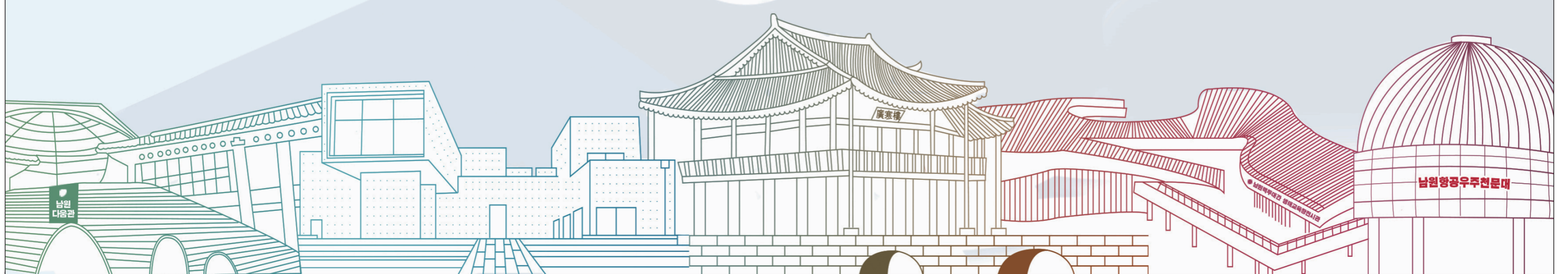
요, 민요, 판소리, 독보실습, 무용 등 분야별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 체계적인 교육과 자율연습을 통해 기량을 연마하고 정기적인 공연기회 제공으로 지속적인 기량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앞으로 남원시립어린이국악단은 지역민 및 관광객들에게 어린이 특유의 옹골차고 멋스러움이 어우러진 공연을 선보여 함께 흥을 돋울 수 있는 우리 국악의 맛을 보여 줌으로써 남원시의 전통문화를 홍보하는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국악교육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국악 꿈나무 육성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남출기자



# 역사가 살아 숨쉬는 관광·문화도시 그 품격을 더욱 높혀 나가겠습니다



## 진천군, 온라인 한마음치매극복 걷기대회 추진

진천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민들의 우울 극복과 치매예방을 위한 '온라인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대회'를 추진한다.

26일 군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매년 4월 2째주 토요일 '전국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의 날을 기념해 오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다.

대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바일 플랫폼인 '워크온' 앱을 이용해 진행된다.

참여방법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를 통해 워크온 설치 후 '진천군치매안심센터' 커뮤니티에 가입해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

챌린지는 대회기간 동안 4만보를 달성하면 되며 무리한 운동을 예방하기 위해 걸음 수는 1일 최대 9000보로 제한된다.

목표걸음 수를 달성한 선착순 400명에게는 모바일 베이커리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커뮤니티 가입자 중 선착순 100명에게 걷기대회 사진상품인 건강꾸러미를 배부할 예정이다.



**진천군 온라인 한마음치매극복 걷기 대회**

- 기간: 2021년 4월 6일(화) ~ 10일(토), 5일간
- 대상: 진천군민 누구나
- 내용: 5일동안 목표걸음 4만보를 달성한 선착순 400명의 참가자에게 선물증정  
 ※ 1일 최대걸음 9,000보제한 ※
- 방법: 워크온 앱 설치 ▶ 진천군치매안심센터 커뮤니티 가입 ▶ 트로피 선택 ▶ 챌린지 시작하기 ▶ 목표달성 후 교환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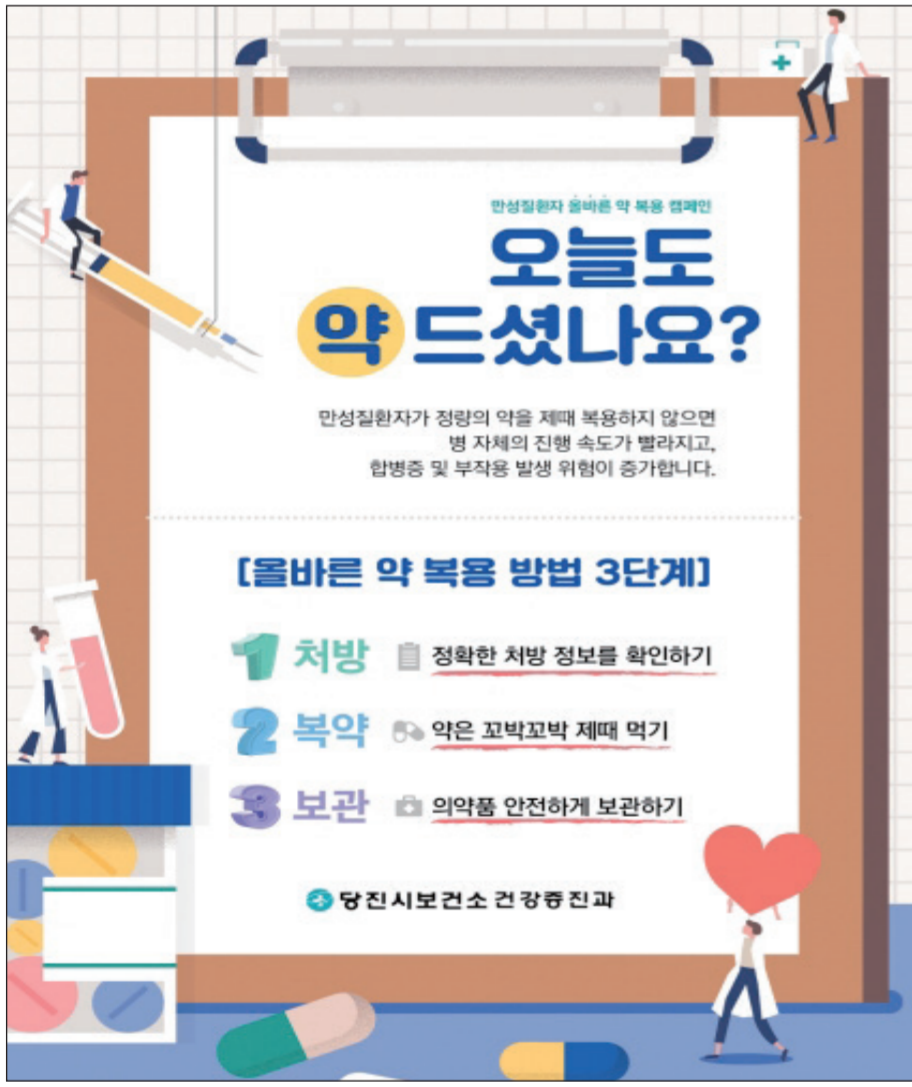
선착순 400명에게 두레주르 상품권 5,000원(모바일) ※ 4월6일부터 ※

진천군치매안심센터 ☎ 539-8783 치매상담센터 ☎ 1899-9988

최만식기자

## 당진시보건소, '오늘도 약 드셨나요?' 캠페인 실시

만성질환자 올바른 약 복용 통해 치료효과 증대



**오늘도 약 드셨나요?**

만성질환자가 정량의 약을 제때 복용하지 않으면 병 자체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합병증 및 부작용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올바른 약 복용 방법 3단계]**

- 1 처방** 정확한 처방 정보를 확인하기
- 2 복용** 약은 꼬박꼬박 제때 먹기
- 3 보관** 의약품 안전하게 보관하기

당진시보건소건강증진과

당진시보건소는 만성질환자의 올바른 투약 관리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오늘도 약 드셨나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주로 약물 치료를 하는 만성질환자에게 복용순응도 향상이 치료효과 증대 및 합병증 예방에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 실시된다.

당진시보건소는 처방약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시기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로 '오늘도 약 드셨나요?'를 캠페인 표어로 정하고 보건기관을 내소하는 만성질환자에게 올바른 약 복용 방법 3단계 홍보와 함께 만성질환 관리 교육도 진행한다.

또 '올바른 약 복용 방법 3단계' 홍보 포스터 및 홍보물을 관내 협약 병·의원과 보건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해 건강관리 실천을 위한 인식 개선에 앞장설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올바른 약 복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자들의 건강관리 인식을 도모해 잘못된 약 복용 습관으로 치료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원호기자

## 충주시-골프장,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지역주민 요금 할인, 장학금 지원, 농산물 판매, 일자리 창출 등

충주시가 지역 내 골프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교류 협력에 나섰다.

시는 26일 중앙탑회의실에서 지역 내 14개 골프장과 지역주민 이용요금 할인, 장학금 지원, 농산물 판매 등 상생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조길형 시장과 충주 지역 골프장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양측은 앞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충주지역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춘 덕분에 14곳의 골프장이 입지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전체 골프장의 37.8%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충주시민 이용요금 할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지역 농산물 판매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공헌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날 협약을 통해 충주시 골프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주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길형 충주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지역주민 이용요금 할인, 장학금 지원, 농산물 판매 등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협조해주시골프장에 감사사를 드린다"며 "이번 협약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충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예산군, '한국관광100선' 황새공원 4월 1일 재개관

자연과 함께 하는 생태체험 프로그램 처음으로 선보여

예산군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와 코로나 확산으로 그동안 임시휴관해 왔던 '한국관광100선' 예산 황새공원을 4월 1일부터 재개관한다.

관람객은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한 뒤 입장이 가능하며 관람객 간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AI방역에 취약한 일부 시설은 기계방하며 관람 및 프로그램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운영될 예정이다.

황새공원은 휴관기간 동안 주기적인 방역소독, 시설 내부 살균, 안전점검, 안내판 정비 등 관람환경을 개선했으며 유아숲·생태놀이터 조성, 생태해설사 역량교육, 벤치마킹, 프로그램 기획회의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신체와 오감을 활용해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놀이와 교구재를 통해 황새의 구조와 생활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해설매뉴얼을 만들었으며 계절변화에 적응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들을 황새공원 곳곳에서 관찰할 수 있는 월별 프로그램을 기획해 체계적인 생태교육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5월부터 운영하는 유아숲과 생태놀이터는 4~7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실내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보고 만지고 느끼고 교감하는 교육프로그램과 숲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프로그램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생태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황새공원 관계자는 "황새공원은 공원 뿐 아니라 주변 역시 길 위의 생태박물관이라 할 정도로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황새공원을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는 소문이 나도록 전 연령이 만족하는 다채롭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 홍성군, 농어업인 삶의 질 제고에 총력

홍성군이 농어업인의 삶의 질 제고와 농촌 복지증진을 420억원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농업,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군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은 물론 지속가능한 농어업, 농어촌을 도모하기 위해 96억원을 투입해 농어민수당을 지원한다.

올해 지급액은 농어가당 80만원으로 상, 하반기에 걸쳐 홍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훈풍을 더할 방침이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농어촌연구의 도시유출을 막고 청년농어업인에게 자금성을 심어주고자 영농바우처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만20세 이상 40세미만의 농어업경영주에게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해 청년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최근 농업에서 여성의 역할과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친화 농업정책에 약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4개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여성농어업인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1인당 20만원상당의 행복바우처를 지원하며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자 농가도우미 지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를 운영해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와 농촌 정착을 돕고 있다.

이밖에 농번기 여성 농업인들의 영농과 가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억 3,100만원을 투입해 공동급식시설 개선과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 주관 '2019 농어업회의소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어업인의 권익대변기구인 홍성군 농어업회의소도 올해 창립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350여명이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목표인원은 2,000명이

다.

군은 홍성군 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면 농정계의 공식적인 대표성을 갖춘 기구로서 농어업인의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농어업인들의 지위향상과 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 농어업 발전은 물론 침체된 농어업,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군은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1억 6300만원 사회적농업 육성화 6억 1,000만원 농업인단체 육성화 7,400만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233억 친환경농업 직불금 3억 농작물보혐료 1억 식량작물 생산기반조성 53억 고품질쌀 소비촉진 기반구축 2억 7,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한은석 농업정책과장은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고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어 농업, 농촌의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각종 정책·시책 발굴은 물론 살기좋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최만식기자

## '시민주권 문화도시' 세종 문화도시 포럼 연다

세종시문화재단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세종음악장작소 누리락에서 '2021 세종 문화도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기초발제와 주제발제, 토론 등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2021 세종 문화도시 포럼"은 '사람이 문화다.문화가 도시다.'

시민문화주권도시 세종'을 주제로 그간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도시와 예비도시로 지정된 도시들이 어떤 고민 속에서 준비했는지와 그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김동호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포럼을 진행한다.

기조강연은 '문명과 도시, 재생, 문화도시'라는 주제로 차재근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협력위원장이 맡는다.

또한 성주와 직곡의 문화도시 지정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도시 이슈와 거버넌스, 그리고 도시전략으로서의 문화도시 접근에 대한 주제발표를 각각 신동호 인문사회연구소장과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가 진행한다.

이어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임재일 사회문화연구소소장, 소장, 지방성 대전세종연구실 세종연구실장, 김동호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나서서 지정 토론을 통해 세종시가 지난해부터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준비해 온 과정을 되돌아보고 세종형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담론을 모아내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종률 대표는 "이번 포럼을 통해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과 지역 내 목소리를 담아 세종시가 지속가능한 법정 문화도시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 청주시, 스마트시티 도약 관·산·학·연 업무협약

청주시가 스마트시티로 도약을 위해 쌍성퍼유엔피, 충북대학교, 충북연구원과 손잡았다.

시는 26일 충북대학교에서 '청주시 맞춤형·상생형 통합모빌리티 정책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관·산·학·연 거버넌스를 구축, 친환경 이동수단인 공유킴보드를 활용해 청주시를 스마트시티로 전환 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모빌리티 중 하나로써 공유킴보드를 활용해 대중교통 간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동성을 향상시켜 청주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도로 상황에 제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친환경 이동수단을 적극 활용해 청주시를 탈탄소 도시로 바꿔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북대학교, 충북연구원은 쌍성의 주행 데이터, 청주시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공유킴보드 관련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청주시는 연구결과를 행정에 반영하고 쌍성은 해당 비즈니스를 서비스로 실현시켜 알맞은 서비스를 청주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시내 공유킴보드 안전, 주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및 사업 프로젝트 수행을 함께하고 관련 세미나등도 개최하며 버스, 택시 등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다른 모빌리티와 연계할 수 있는 통합 모빌리티 구축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원식 도시교통국장은 "개인형 이동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청주시가 스마트시티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여성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힐링프로그램 인기

영월군이 지난 3월부터 관내 여성농업인의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여성농업인 힐링 프로그램이 여성농업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지난 3월 5일 북면 하늘샘 마을과 무릉도원면 운학1리를 시작으로 현재 관내 9개 마을 120 명이 참여해 한지공예, 도자기공예, 퀼트공예, 요가, 필라테스, 라인댄스 등 다양한 내용의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회 참석률이 100%에 가까울 만큼 여성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여성농업인 힐링프로그램 운영은 총 4천8백만원을 지원해 각 마을가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 기간을 결정해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동안 총 337회, 520시간에 걸쳐 운영되며 마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육장소 소독, 교육생 마스크 착용, 교육장 내 음식물 미섭취 및 참석자 발열체크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코로나19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영농에 바쁜 여성농업인들에게 농한기나 저녁시간 등 틈새시간을

이용해 각 읍·면별로 건강, 문화, 취미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의 기회가 적은 여성농업인들의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생활에 활력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원육성과 김영미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라 프로그램 운영 시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 여성농업인들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지속가능 도시 구현 앞당긴다

## 춘천시정부, 자원순환 시민의식 개선 홍보 및 불법투기 단속 추진

춘천시정부가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에 더욱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시정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불법 투기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1,801건이다. 이 기간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건수는 6만5,197건에 달한다. 특히 홍보 건수는 2018년 1만 5,242건에서 2020년 2만8,43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시정부는 자원순환 시민의

식을 개선하고 불법투기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시내일원에서 가동되는 있는 42대의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와 통합 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인 1,715대의 CCTV를 가동해 비양심적인 투기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고 있다.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홍보로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이 목표다. 또한 단속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와 불법투기 단속 인원은 138명으로 단속 연중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한 단속. 집중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 생활폐기물 혼합 배출 폐기물 수집 장소 외 투기 차량을 이용해 인적 드문 장소에 투기다. 임병운 자원순환과장은 “올바른 분리배출은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문화”며 “시민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에 동참해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 강릉과학산업단지, 지역경제 중심지로 부상

##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 성장 지속

강릉과학산업단지 조성이 산업발전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주며 지역경제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강릉과학산업단지의 2020년 기준 연 매출은 3천5백억원, 고용인원 1,600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2019년 대비 크게 성장했다. 강릉시는 지난해 과학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전부 완료하고 4차산업 시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존 산업단지와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중소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 입주기업에 대한 성장 지원과 효율적 산단 운영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해 예외사항을 정취하고 규제 개선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 및 부진기업에 대한 사업착수 유도·지원방안을 강구해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강릉시는 산업단지의 긍정적 효과에 따라 지역경제를 살리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목표로 추진 중인 농공단지의 100% 분양,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권 육계 첨단소재융-복합산업지구 기업유치, 구정 북방물류 및 강릉허브거점단지내 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산업단지의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엄청나게 클 것으로 보며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는 고용인원 2천 명, 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과학산업단지로 성장시켜 강릉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시민 연대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그림책 도시

## 4월 1일 그림책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는 지속가능한 그림책도시 실현 및 자생적 그림책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해 ‘문화도시 원주 그림책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4월 1일 오후 3시 그림책여행센터 이담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원주의 10여 년 후 미래 모습을 담은 중장기 계획을 도출하게 된다. 대내외 환경 분석 및 그림책 이슈와 인터뷰, 성과 등이 포함되며 연구 과정을 오픈데이블을 통해 시민과

함께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는 지난 5년간의 그림책사업 활동을 총망라한 ‘그림책여행센터 이담 백서’를 발간했다. 센터 관계자는 “2001년 한 시민의 문화 활동으로 시작한 그림책 사업이 20년간 성장해 그림책여행센터 이담이 문을 열고 문화도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백서에는 그림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 삼척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한다.

삼척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무인교통단속 장비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먼저 삼척시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라초등학교, 삼척중앙초등학교, 근덕초등학교, 장호초등학교, 미로초등학교, 도계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6개소를 설치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등을 해소하고자 근덕초등학교 앞, 도계초등학교 앞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2개소를 설치한다. 삼척시는 장비 설치에 앞서 지난 25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를 진행했으며 오는 6월 중에 발주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들의 안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은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 정선군,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사항 점검

정선군은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군은 신속하고 정확한 접종 체계를 구축해 군민들이 안전하게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승준 정선군수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백신접종 개요, 단계별 추진 계획, 접종대상자 수송계획, 예방접종센터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접종대상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4,872명 가운데 안전한 백신접종을 위해 접종에 동의하고 도보 및 차량 등 이동이 가능한 어르

신이며 거동불편 및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제외된다. 각 읍면 담당공무원과 이·반장이 협업을 통해 대상자로부터 접종 동의서를 받은 후 최종 명단을 확정할 방침이다. 군 예방접종센터는 정선종합경기장 내 체육관에 설치되며 4월 초 모의훈련 실시 후 행안부 및 질병관리청이 최종 승인해, 백신 공급일정이 확정되면 4월 중순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고령이신 어르신을 우선으로 접종을 실시하는 만큼 대상자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개인별 동서서 징구를 위한 마을

이장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백신접종 시 대상자 이동 및 사후관리 체계에 만전을 기해 군민들이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수/기자



# 워크온 걷기 마일리지 1차 챌린지 운영

동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시민들의 일상 속 걷기 실천을 장려하고 자기건강 관리능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같이 걸자, 동해 한바퀴’ 워크온 걷기 마일리지 챌린지를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워크온은 휴대폰 어플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신의 걸음 수를 측정하고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면 선물도

받을 수 있어 걷기운동을 재미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모바일 앱으로 현재 동해시에는 2천여명이 커뮤니티에 가입해 걷기 실천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1차 정기 챌린지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20만보, 40만보, 80만보 달성에 따라 방역마스크·종량제봉투·주차권·선캡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최만식/기자



# 사)경상북도육외광고협회 구미시지부장이·취임식



경상북도육외광고협회 구미시지부는 지난 25일 오후 6시 구미시 3층 대회의실에서 장덕수 구미시 도시환경국장, 윤창욱 경상북도 의회 의원, 이지연·장미경 구미시의회 의원, 임중복 경상북도 육외광고협회장, 각 지역 지부장 및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지부장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이·취임식을 비롯해 그동안 안전·환경·문화·정착과 지역발전 등에 기여한 회원 및 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김재돈 전 지부장에

가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임 정원표 지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6년간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협회를 이끌어 주신 전임 김재돈 지부장님께 깊은 감사

를 드리며 구미시지부 임원 및 운영위원들과 함께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광고인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장덕수 구미시 도시환경국장은 “그동안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위해 노력해온 협회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를 마음껏 거닐 수 있도록 쾌적한 거리미관 조성에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991년 설립된 경상북도육외광고협회 구미시지부는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운영, 육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등의 민원업무 수행과 재해방재단 운영, 불법광고물 정비 등 도시미관 개선과 육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에 힘써오고 있다.

최만식/기자

# 초원환경, 남해군 장애인체육회 발전기금 1천만원 쾌척

향토기업 ㈜초원환경이 지난 25일 지역 장애인들의 체력증진을 통한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남해군 장애인체육회 발전기금으로 1천만 원을 기증했다. 이날 남해군청 군수실에서 열린 기증식에 참석한 강우석 상무는 “향토기업의 존재이유는 민관이 서로 어울려 상생하는 가운데 보다 나은 미래를 추구해 나가는 데 있다”며 “특히 민선체육회 출범 이후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적극적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업이 앞장서야 한다”는 경영주의 경영철학을 전달했다. 장충남 군수는 “장애인체육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

다”며 “장애인체육회 창립 이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어 회장으로서 감사의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장애인체육회 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초원환경 강태성 회장은 남해군체육회 부회장, 복싱연맹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남해군 체육 발전에 기여해왔다. (주)초원환경은 남해초등학교 축구부 차량 구입, 남해 농수산물 판매를 통한 농어민 소득증대, 전통시장살리기, 향토장학회, 불우이웃돕기 등에 매년 고액을 기부하며 군민과 동반성장하는 기업으로써 모범을 보이고 있다.

강영훈/기자



#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원, 영예의‘지방의정봉사상’수상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원이 전주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의원에게 수여한다. 제8대 후반기 임실군의회 부의장을 맡고있는 이성재 의원은 지난 2월 22일 한국기독교장로회 남산교회 전국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전국으로 임실군의 위상을 높이

고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에 따른 사회적 병리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기 위한 ‘임실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는 등 군민 생활에 밀접한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성재 의원은 “앞으로도 군민만을 바라보고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 류경기 중랑구청장, 전국시군구공무원노조 감사패 받아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25일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권익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32년의 공직생활을 접고 민선7기 중랑구청장으로 취임한 류경기 구청장은 전여명 직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과 소통·화합을 통한 조합원의 사기 진작에 앞장섰다. 또한 동 주민센터 비상벨 설치 등

으로 조합원 근로환경 개선에도 힘썼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전국시군구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의 감사패 전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며 “직원들이 행복해야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 앞으로 문턱없는 열린 소통으로 노사가 화합하는 화목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성장현 용산구청장,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

##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유공납세자 선정 표창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 25일 구청장실에서 유공납세자 표창을 수여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에 따라서다. 올해 구는 10명의 유공납세자를 선정,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김재석 피제이전자 대표, 최병민 깨끗한나라 대표, 김창원 유영실크 대표, 예찬우 예스통상 대표, 박한상 KBI그룹 부회장 등 5명에게 구청장이 직접 표창을 전달했다. 나머지 5명에게는 우편으로 표창장을 보낸다. 유공납세자 선정 기준은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사실 없이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 이상 계속해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지역

내 주 소·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 5백만원 이상, 개인 2백만원 이상인 자 등이다. 구 지방세심의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유공납세자에게는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 간 면제,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참여 기회 부여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납세 유공자들에게 30만 구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이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전북연구원 권혁남 원장 취임

8대 전북연구원 권혁남 원장이 25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권 원장은 “천년 전북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로 도민들께 보답해야 한다”며 “연구원의 창의적 연구성과가 정책실현의 마중물이 되어 전북발전의 원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주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은 권 원장은 1989년부터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그동안 권 원장은 한국언론학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 전북대 행정대학원장과 사회과학대학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이러한 경험으로 권 원장은 이사 회로부터 소통능력과 업무추진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 원장은 지난달 23일 이사회에서 원장을 선임된 후 지난 19일 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날 취임했다. 권 원장의 임기는 25일부터 3년이다.

김승일/기자



# 안성시청 소프트테니스선수단, 관내 취약계층에게 훈훈한 사랑 나눔 실천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26일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찾아 100만원 상당의 기부물품 및 현금을 지원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이달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 제1차 한국실업테니스연맹전 및 전국중별테니스대회에 출전해 두 대회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선수들 모두 지역 주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이라 생각해 관내 취약계층을 찾아 봉사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후원대상자는 각 읍·면·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을 통해 추천받아 공적지원이 어려운 복지사각지

대 놓인 취약계층 두 가구가 선정됐다. 이날 기부물품 및 현금을 전달받은 최 모 씨는 “평소 무릎이 아파 거동이 힘들어 집 청소를 못했는데 안성시청 선수들이 와서 청소도 해주고 필요했던 생필품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소프트테니스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선수들과 이웃을 돕는 나눔 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무척 보람됐다”며 “앞으로도 주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수/기자



# 광주시-한국AVL, 미래車 산업 육성 손잡았다 시 기반 자율주행차 사업 위한 솔루션 제공, 광주 사업장 개소



광주광역시와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자동차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파워트레인 분야 글로벌 연구개발 전문 기업인 한국AVL과 손잡고 광주 빛그린산단에 AI기반 미래자동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광주시, 경제자유구역청은 25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용섭 시장과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형 한국AVL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빛그린산단 AI 기반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VL은 1948년 오스트리아에서 설립해 독일, 일본, 한국, 프랑스, 미국, 인도, 영국, 중국, 스웨덴, 터키, 브라질 등 전 세계 26개국에 45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 파워트레인 분야의 기술 선도기업으로 미래의 모빌리티 요구에 적합한 선도기술과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전 세계 완성차 및 부품기업들에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는 서울, 인천, 안산, 창원 등의 사업장에서 130여명의 직원들이 종사하고 있다.

업무협약을 통해 AVL이 가지고 있는 미래자동차 기술력과 기술파트

너의 역할을 통해 빛그린산단 미래 자동차 산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광주형일자리 첫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친환경 경자동차 및 자율주행차 생산에 필요한 기술 파트너 역할 제공 AI 기반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자문 및 관련사업 솔루션 제공, 우수 연구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장 개설 친환경차 부품 인증센터, 친환경부품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지원 인공지능 융합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GIST와 공동 연구 프로세스 구축 및 국가 R&D 과제 공동 참여 및 기업 연구과제 발굴 광주 AVL 사무실 개소, 설립·운영을 통한 지역 내 연구인력 고용 확대 등이다. 김진형 한국AVL 대 표 이 사 는 "광주글로벌모터스 및 부품업체들이 높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특화된 파트너 역할을 제공하고 지역 내 연구기관, 대학과의 기술적 교류, 공동연구, 교육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화된 산학연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 지역사업장을 개설하고 지역 내 우수인력 교육지원

과 함께 AVL 인재 채용시 지역 내 우수인력들을 고용하겠다"며 "앞으로 송도기술연구소와 광주사무소와의 연결을 통해 국내 자동차 연구개발 및 생산거점에서 AVL의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 청장은 "미래차 생산기술의 선두 주자인 AVL과 협력해 AI 기반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자문과 관련 사업 솔루션 제공은 물론 우수 연구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장을 개설하겠다"며 "앞으로 시장 검증이 된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업무협약과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는 자동차, 인공지능, 스마트에너지 등 주력 산업 단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광주시는 글로벌 기업인 AVL과 함께 친환경부품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빛그린산단이 친환경자동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생산클러스터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위한 추경 2조 3484억원 확정

### 7900만 명분 중 올해 추가 소요 비용... "안정적 수급·신속한 접종에 더욱 만전"

질병관리청은 25일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19 해외 백신 구매 비용 2조 3484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매 계약 체결한 총 7900만 명분의 백신 구매 총 소요 비용은 3조 8067억 원인데, 이 중 이미 확보한 예산 등을 제외한 올해 추가 소요 비용은 2조 3484억 원이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확보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구매 계약을 확대 추진해 왔으며, 이에 따른 선급금 등 소요 재원을 마련해 왔다.

또한 예산 세부 산출 내역은 협상이 마무리된 후에 백신 종류, 단가, 몰량 등 확정 가능함에 따라 최종 백신 잔금 등을 반영한 추가 소요 비용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이 결과 코로나19 해외 백신 구매 비용으로 2조 3484억 원이 확정되었는데, 이에 앞서 이미 구매 계약 체결한 백신은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해 앞으로도 원활하게 백신이 공



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추경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인프라·시행비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방역 대응 등 추가 지원을 위해 목적예비비 1조 1000억 원도 반영됐다.

이에 2021년 질병청 총지출은 9917억 원에서 3조 3401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신속한 예방접종에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만식/기자

## 차량 렌트·리스 10개사, 2030년까지 100% 무공해차로 전환

###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 선언식...수송부문 탄소중립 실현

환경부와 10개 자동차 렌트·리스 업체가 수송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업 보유차량을 2030년까지 무공해차(전기·수소차)로 100% 전환할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환경에 환경부 장관은 25일 서울 상암 문화비축기지에서 그린카, 더케이모토모티브, 롯데렌탈, 선경엔씨에스렌트카, 쏘카, 에스케이(SK)렌터카, 제이카, 피플카, 화성렌트카, 현대캐피탈 등 10개 자동차 렌트·리스 업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 선언식을 열었다.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은 민간기업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2030년까지 100%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프로젝트 사업이다.

사업은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친환경 미래차 보급'과 수송부문 탄소중립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민간기업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유도·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차량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 무공해차 대규모 전환 수요를 창출하는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 선언 행사를 첫 번째 주자차량 렌트·리스업체를 선정했다.

이번 선언식에 참여한 10개 자동차 렌트·리스업체의 보유 차량은 전체 렌트업체 차량의 75% 수준인 약 69만 7000여대이며 이 중 무공해차는 약 1.7%(1만 1000대)를 차지한다.

10개 사는 올해 약 1만여대의 무공해차를 새로 구매하고 보유 중인 약 6000여대의 내연기관차를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공해차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5년 23만대, 2028년 63만대, 2030년까지 99만대(누적)의 무공해차를 구매, 2030년에 100% 전환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는 2030년 정부 보급목표의 25.7%에 달하는 실적이라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참여기업에게 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보조금을 우선 배정하고 사업장에 충전기반시설(인프라)을 설치하는 등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인·기관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물량을 별도로 40% 배정하고 구매보조금 신청 시 참여기업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선언식을 시작으로 올해 4월부터 제조·금융·물류·운수 등 업종별로 공동선언식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더욱 많은 기업들이 '2030 무공해차 전환 100' 선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다양한 지원과 협력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 장관은 "수송부문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무공해차 전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이 민간의 자발적인 무공해차 전환을 활성화하는 민·관 협업의 새로운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 배달특급, 국내 배달앱 소비자 호감도 '두 달 연속 1위'

###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국내 11개 소비자 채널서 6개 배달앱 조사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국내 배달앱 소비자 선호도에서 2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6일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 배달앱 6개사 대상 선호도 조사에서 배달특급이 49.80%를 기록, 지난달에 이어 1위를 유지했다.

이어 배달의민족 40.24%, 요기요 35.21%, 위메프 34.47%, 쿠팡이츠 32.00%, 배달통 23.56%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한 달간 연구소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와 기업/조직·정부/공공 기관의 11개 채널 사이트에서 호감도 조사를 진행했다.

선호도도란 긍정률에서 부정률을 뺀 값을 말한다.

채널 내 게시물에 '멋지다 좋다 만족한다 최고' 등 단어가 많으면 긍정률로 '나쁘다 화난다 불만족' 등 부정적 단어가 많으면 부정률로 분류된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관계자는 "배달의민족이 굳건한 아성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배달특급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면서 "무엇보다 수수료가 저렴한 덕분에 본

석된다"고 말했다.

배달특급은 수수료 1%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독과점 형태의 배달앱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탄성한 경기도형 공공배달앱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배달특급이 2개월 연속 선호도 1위를 차지한 것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서비스 지역을 빠른 시일 내 확대해 공공배달앱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 2019년 국내 물산업총매출 46조...전년대비 6.8% 증가

### 환경부, '물산업 통계보고서'·'해외 물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2019년 기준 국내 물산업 총매출액은 약 46조 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국내 물산업의 현황을 다룬 '물산업 통계보고서'와 러시아 등 신흥시장 5개국의 물산업 동향 등을 조사한 '해외 물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26일 발간한다고 25일 밝혔다.

'물산업 통계보고서'는 국내에서 물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물산업 사업체 일반현황, 경영활동 등 18개 항목을 조사한 것이다.

2019년 기준 물산업 분야 총 매출액은 약 46조 2000억원으로 국내 총생산량(GDP)의 약 2.5%로 추산됐다. 전년도 매출액 약 43조 2000억원 대비 약 6.8% 증가한 것이다.

업종별 매출액은 물산업 제품 제조업이 25조 6715억원(55.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12조 5843억원(27.2%)이었다.

국내 물산업 사업체 수는 1만 6540개로 전년 대비 1067개(6.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전체 사업체 수의 약 0.4%를 차지하는 수치다.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8491개사로

국내 물산업의 51.3%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이 5399개사로 32.6%였다.

물산업 분야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9687명(5.3%)이 증가한 총 19만 3480명으로 조사됐다.

해외진출 사업체는 총 313개사로 전체 물기업 중 약 1.9%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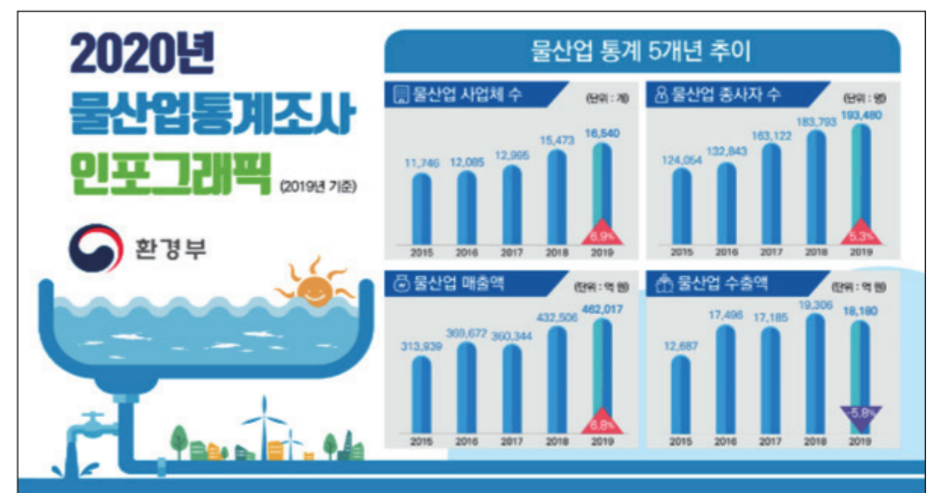
업종별로 해외진출 사업체는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이 283개사로 가장 많고 이어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21개 사였으며 진출 유형은 현지 법인 형태(215개사)가 가장 많았다. 연구개발(R&D) 활동기업은 전체 물기업 중 약 16.3%로 추산돼 산업

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기업의 해외진출 및 연구개발 확대 등 관련 분야의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환경부는 지난해 한해 동안 신흥시장 5개국을 조사한 결과를 담은 '해외 물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신흥시장 조사국가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몽골이다.

보고서는 조사대상국의 일반 국가 현황부터 수자원 현황, 인프라 현황 등 물관리 현황과 물 산업의 규모, 국가정책, 발주계획, 물 기술 연구개발(R&D) 현황 등 국내 물 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물기업의 해외 진출전략도 담았다.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와 '해외 물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watis.or.kr)에 공개된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한국물산업협회 등을 통해 관련 물기업에도

보고서가 배포될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국내 물산업 진출 및 물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물산업 일반현황과 현지의 물 시장 분석은 기본이자 필수요소"라며 "향후에도 스마트 물관리, 수열, 수상태양광 등 신산업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 양양군, 춘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3월 집중홍보 후, 불법행위 단속

양양군이 봄철 산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군은 춘절기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산림사법경찰 공무원과 산림녹지지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꾸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이달 말일까지는 홍보에 집중하고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산림사법 특별기간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인터넷 모집책과 차량 등을 동원한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불법산지전용 등이고 행위의 불법성을 인지한 범법자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사법처

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산림드론을 활용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인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한초 산림복지과장은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며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재은기자



## 안성시, 유흥시설 오후 10시 이후 영업 행위 집중단속

안성시는 지난 2일부터 관내 유흥·단란주점 88개소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영업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영업제한 시간을 어기고 영업을 한 A유흥주점 영업주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유흥주점은 지난 24일 오후 10시 30분경 간판 불을 끄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의심되어 경찰과 합동으로 지하 비상구와 출입문을 통해 진입했고 2개의 룸에 손님이 있는 것을 적발했다.

이에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발된 영업주와 이용자에게 각각 15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해당 영업주에게는 시에서 지원하는 손실보상지원금도 미지급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관내 모든 식품접객업소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경찰서와 합동 점검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해 일부 영업자들의 불·탈법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근수기자

## 진천군, 관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설 설치 행정예고

진천군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3개소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설 설치·운영 행정예고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무인단속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은 진천읍 남한강마트 주변, 이월면 터미널 주변, 충북혁신도시 센텀클래스 아파트 정문이며 오는 4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군은 최근 관내 등용차량대수와 불법주정차 민원이 함께 증가함에 따라 단속시설 설치예산 8천여만원을 확보해 이번 사업을 진행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정식단속은 충분한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5월경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오는 4월 12일까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서면,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군 건설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은 1회 추경예산에 군비 8천 4백만원을 확보해 올해 상반기 내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7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시설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 남동구, 폐수배출업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점검

인천시 남동구는 폐수배출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민간환경감시단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민간환경감시단은 지역 주민, 세정협회 등 22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합동 점검반은 세차장 등 폐수배출시설 44곳을 대상으로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구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행정지도하고 고의적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업소는 고발 및 조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분기별 1회 이상의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해 실효성이 있는 환경오염 예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 주

민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의 참여로 단속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주민들이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해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이나 환경오염신고 콜센터 '128'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정화기자



## 오산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점검

오산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총력 대응을 위해 25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3월에 끝나면서 마지막까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를 사용하는 관내 버스를 대상으로 운행차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훼손 등을 점검한다.

배출가스 점검 반원은 4인 2조로 구성해 차량 배기관에 시료 채취관을 삽입하고 엔진 최고 회전수에 도달할 때까지 가속 페달을 밟은 후 매년 농도를 측정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15일 이내에 인근 차량전문정비업체에서 정비·점검 후 확인검사를 받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오산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외에도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점검반을 편성해 매일 건설현장, 공회전 제한, 불법소각, 자동차 공회전 제한 등 점검을 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강제 환기장치, 미세먼지 IOT 에어샤워, 버스쉘터, 미세먼지 신호등을 상반기 중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스마트 마스크 자동판매기를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직영 운영하고 농도 미세먼지에 항시 대비하고 있다.

심흥선 환경과장은 "계절관리제 총력 대응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여 쾌적하고 깨끗한 살기좋은 오산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 장흥군, 개학기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장흥군은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 탈선과 비행 예방을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이 참석해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 활동에 앞장섰다.

특히 업소들을 방문해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 술, 담배 판매 금지' 및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

표시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 유해 매체·유해 약물 등에 대한 단속, 유해 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등에 대한 의무 이행 사항 등을 적극 홍보해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인식 강화를 도모했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이번 민관 합동 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의 일탈을 예방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길기자



## 거제시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합동점검 실시

거제시는 거제경찰서 YWCA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수공원, 해수욕장, 관광지의 공중화장실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및 비상벨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와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서 상황실과 통화가 가능한 비상벨의 정상작동 상

태를 확인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공중화장실 범죄예방환경 조성을 위해 매 분기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강영훈기자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장,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현장 점검

권경만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장은 26일 의창구 서상동, 중동 일원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 현장 방문해 전반적인 공사 점검과 동시에 공사기간 중 불가피하게 시내버스 운행노선을 임시 변경함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 준비와 홍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의창구 서상동, 중동 일원 노후수도관 교체공사는 3월 착공해 금년 5월 말 준공 예정으로 총공사비 28억원을 들여 총연장 8km의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사업이며 특히 이번 공사 대상지는 40여년 전에 설치된 노후수도관에서 잦은 누수와 혼탁수가 발생해 상수도 불편 민원이 많았던 지역으로 이번 공사로 인해 주민들에게 더욱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노후수도관 교체공사로 인해 2021년 3월 29. ~ 4. 21. 서상로 일방통행길 시내버스 운행노선이 읍성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임시 변경됨에 따라 창원초등학교 맞은편에 임시정류장을 설치하고 '창원시 4주

혁신 시책'과 맞물려 지역주민 홍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버스정보시스템 알람, 안내문 부착,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를 실시했다.

권경만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장은 "시내버스 운행노선 임시변경에 따른 사전 홍보로 불편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차질 없이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 청소년이 안전한 세상 김천시, 청소년유해환경 지도·점검 실시

김천시는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을 보호하고 일탈행위를 예방해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 25일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지도점검 활동을 실시했다.

이 날 지도단속에는 김천시청, 김천경찰서 김천YM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3개 기관 10여명이 참여해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대곡동, 신음동 일대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소, PC방, 노래방, 음식점, 편의점 등 40여개 업소에 대해 지도단속과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단속반은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와 출입시간 제한 업소, 주류·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유해 매체

물 취급업소를 구분해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출입시간 준수, 주류·담배·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방법 준수,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점검했다.

단속반은 점검과 함께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청소년보호법 관련 규정을 명시한 홍보 리플릿을 배부해 청소년 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유해환경감시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고 지역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 양평군, 관내 유흥시설 등에 코로나19 방역대책 특별점검 실시

양평군에서는 지난 24일 관내 유흥시설 등에 대한 코로나19 방역대책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관내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며 주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유흥시설 특별 방역대책을 수립했고 12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 사항 등을 철저히 확인했다.

점검에 참여한 이계환 부군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코로나19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군에서는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부서 간 협조체계를 유지해 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성용기자



# '놀면 뭐하니?' 유재석의 새 부캐! 전통을 사랑하는 힙스터 '유야호'!

“배우 진지희, ‘펜트하우스 제니의 이중생활’ 패션 매거진 ‘마리끌레르’ 4월호 몽환적인 분위기의 화보공개”

MBC '놀면 뭐하니?'에 익숙한 듯 낯선 매력을 가진 새 부캐 '유야호'가 등장한다. '환불원정대'를 제작한 신박기획 '뽀100귀' 지미유의 쌍둥이 동생인 '유야호'는 지미유와는 전혀 다른 취향을 가진 인물로, '놀면 뭐하니?'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궁금증을 끌어올린다.

오는 27일 저녁 6시 30분에 방송되는 MBC '놀면 뭐하니?'(연출 김태호, 유재석, 김윤집, 장우성, 왕중석, 작가 최혜정)에서는 '유야호'와 함께하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공개된다.

'놀면 뭐하니?' 제작진과 긴밀히 새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유야호'는 2020년 가요계 세대를 뛰어넘는 레전드 만옥(엄정화), 천옥(이효리), 은비(제시), 실비(하사)와 함께 '환불원정대'를 탄생시킨 지미유의 쌍둥이 동생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그와는 전혀 다른 취향과 성격을 지닌 인물이다.

'유야호'는 쌍둥이 형 지미유의 활약에 대해 "지미유 제작자의 역량보다는 환불원정대가 다 했다"라며 냉정한 평가도 서슴치 않는 당당함으로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유야호'는 비트보다 감성을, 화려함보다 수수함과 전통을 사랑하는 힙스터로, '들 야(野)', '좋을 호(好)'라는 이름의 뜻처럼 들을 좋아하는 감성파다. 공개된 사진 속 한국의 아름다운이 돋보이는 한옥에서 깔끔한 생활한복을 입고 전통 부채를 든 모습과 차(茶)와 구수한 누룽지를 즐기는 그의 모습이 눈길을 모은다.

'놀면 뭐하니?' 제작진은 "환불원정대의 제작자 지미유의 쌍둥이 동생 '유야호(유野好)'와 새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비트를 사랑한 유학파 프로듀서 지미유와 180도 다른 전통과 '유야호'는 누구든 그의 이름을 외치고 싶게 만드는 색다른 매력을 지닌 감성 힙스터"라며 "그와 호흡을 맞춰 진행될 프로젝트의 내용은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전통을 사랑하는 감성 힙스터 '유야호'의 정체와 새로운 프로젝트의 내용은 오는 27일 저녁 6시 30분에 방송되는 '놀면 뭐하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놀면 뭐하니?'는 고정 출연자 유재석이 릴레이와 확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유(YOO)니버스'를 구축하며 '부캐' 신드롬을 일으켰다. 코로나 시대에 열기 쉬운 웃음과 따스한 위로로 동시에 전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전순희기자

# 배우 최귀화, 시나리오 '코리안 타임' 전자책, 오디오북 출간... "새로운 도전"

배우 최귀화가 집필한 시나리오 '코리안타임'이 전자책과 오디오북으로 출간된다.

26일 소속사 빅펀치이엔티가 "배우 최귀화가 집필한 시나리오 '코리안 타임'이 전자책 및 밀리의 서재에서 오디오북으로 출간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설, 웹툰, 만화, 게임 등 다양한 장르가 영화 혹은 드라마화 되어 대중들에게 다가가며 좋은 성적을 이루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극장가로 발걸음 하기 꺼려지는 지금 집에서도 쉽게 즐겨볼 수 있는 OTT 플랫폼이 인기를 끌고 있다. '코리안타임'은 이러한 현재 상황을 반영해 영화 제작에 앞서 눈과 귀가 즐거울 수 있는 색다른 방법을 모색한 결과 전자책과 오디오북으로 먼저 출간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여러 번천사를 겪으며 지금의 시나리오가 된 '코리안타임'은 처음 희곡 장르를 목표로 제작되었지만 시간과 문화생활의 변화로 점차

영화 시나리오로 발전되면서 더욱 탄탄해졌고 오랜 시간 공들인 만큼 높은 완성도를 보인다.

영화진흥위원회 시나리오마켓에 등록하면서 이달의 우수작으로도 선정되었던 이 시나리오는 영화제작사와 인연을 맺으면서 본격 제작에 돌입하게 되었으나 흥행성과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다른 매개체를 통해 선공개할 예정이면서 현재 처한 사회적 상황의 문제점에 대한 피해를 줄여갈 계획이다.

충무로가 사랑하는 배우 답게 최귀화는 현재 영화 '범죄도시2', '부기 나이트'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쉽지가 않을 계획이었다. 이번 작품은 최귀화의 작가로서 첫 데뷔작으로 '민보배'(민고 보는 배우)의 타이틀과 함께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최귀화가 집필한 '코리안 타임'은 올 3월 26일 밀리의 서재에서 오디오북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전순희기자



# '신비한 레코드샵' 송은이 "8개월간 섭외 없어 마음고생" 콘텐츠 기획자로서 '제2의 전성기' 열린 계기 고백

'신비한 레코드샵'에서 콘텐츠 기획자로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송은이가 과거 8개월간 섭외가 없어 마음고생을 했던 사연과 이를 극복하게 된 계기를 소개하며 좌절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다.

오늘(26일) 방송되는 JTBC '배달 garyo-신비한 레코드샵'(기획 JTBC/제작 SM C&C STUDIO/연출 김지선/이하 신비한 레코드샵)에 나이를 불문하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줄 것 같은 '척척 해결사' 오은영, 송은이, 임도형이 출연한다. 이들은 '인생극' 소개와 이에 얽힌 자신들의 솔직한 이야기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날 녹화에서 개그우먼이자 예능인들의 정신적 지주로, 현재는 콘텐츠 기획자로 제2의 전성기까지 맞이한 송은이가 위로가 절실했던 과거 시절을 고백해 이목을 사로잡았다.

송은이는 "8개월이 넘도록 섭외가 없었다. 2014년 무렵 예능 프로그램의 흐름이 리얼 버라이어티가 주를 이뤘을 때 잘 맞지 않아 공백기가 길어졌다. 아무도 찾지 않아 슬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은이는 "김숙과 함께 앞날에 대한 고민 중 '아무도 찾지 않는다'면 우리가 방송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게 '맛캐스트'라며 현재 6년째 인기리에 진행 중인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이 만들어진 계기를 설명해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다.

실제로 많은 연예계 동료들의 고민 상담을 들어주고 있다는 송은이는 '절친'인 배우 최귀화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고민도 공개했다. 최귀화의

고민은 송은이에게 "뭐 이런 걸 다 물어봐"라는 반응을 얻어냈다고 해 무슨 질문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또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자 '리틀 송해'로 불리고 있는 임도형 군은 송은이에게 돌발 질문을 던져 그를 당황하게 했다. 전하의 송은이의 얼굴을 붉히게 만든 열세 살 임도형 군의 패기 넘치는 질문은 모두를 폭소케 했다.

그런가 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은 '국가대표 멘토'라는 수식어에 어울리는 주옥같은 멘트를 귀를 종긋하게 했다. 그는 "세상에 맞서려면 공격성이 필요하다"면서 "공격성"이란 삶을 잘 버틸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자신만의 창조적인 삶에 필요한 원동력"이라고 설명해 모두의 큰 공감을 얻었다.

특히 MC 장윤정은 심신이 극도로 지쳐 가수의 꿈을 포기하려던 시기에 다시 힘을 내서 꿈을 향해 도전했던 자신의 일화를 덧붙이며 오은영의 말에 공감을 표했다는 후문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이 밖에도 자신을 롤모델이라고 밝힌 규현을 향한 장윤정의 '라떼'는 '조언, 게스트의 한마디에 일회비밀하는 윤종신의 소년 같은 모습 등 4MC 윤종신, 장윤정, 규현, 웬디의 흥미로운 이야기까지 오늘(26일) '신비한 레코드샵' 시즌 마지막 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비한 레코드샵'은 윤종신, 장윤정, 규현, 웬디 4MC와 함께 공동의 직업으로 묶인 게스트가 출연해 '인생 이야기'와 '인생극'을 소개하며 플레이리스트를 완성하는 음악 예능으로 매주 금요일 밤 9시 방송된다.

최재은기자



# '연모', "비주얼 꽃이 피었습니다~" 남윤수-최병찬-배윤경 캐스팅 확정!



KBS 2TV '연모'가 남윤수, 최병찬, 배윤경의 캐스팅을 확정, 울가울가 화사한 비주얼로 조선의 낭랑한 청춘을 그릴 라인업을 완성했다.

KBS 2TV 새 드라마 '연모'(연출 송현우, 극본 한희정, 제작 이야기사냥꾼, 몬스터유니온)는 쌍둥이로 태어나 여아라는 이유만으로 버려졌던 아이가 오라비 세손의 죽음으로 남장을 통해 세자가 되면서 벌어지는 비밀스러운 궁중 로맨스 드라마다. 조선 시대 여자의 몸으로 왕위에 올라, 여자라는 이유로 역사에서 철저히 사라져야 했던 왕이 있었다면 어떤 이야기가 썼을지, 그 복잡한 상상에서 시작된 작품으로, 이소영 작가의 동명 만화가 원작이다.

'남장 여자'란 소재를 궁으로 가져왔다는 점, 남장을 한 여자가 '왕'이라는 독특한 설정으로 일찍이 호기심을 자극한 가운데, 최근 박은빈과 로운의 캐스팅 소식을 전하며 드라마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바, 여기에 오늘(26일) '연모' 측이 남윤수, 최병찬, 배윤경 등의 캐스팅을 추가로 공개하며, 풍성하게 채워질 궁중 로맨스 서사를 예고했다.

먼저, 남윤수는 왕실의 종친 '이현'으로 분한다. 다정다감하고 예의 바른 성격에 교만하지 않고 정도를 아

하는 것은 반드시 제 손에 넣고야 마는 주도면밀한 성격으로 세자빈의 자리를 바라보지만, 어느 날 그보다 더 욕심이 난 사내 정지윤(로운)을 만나 일생일대의 고민에 빠진다. 팔색조 매력으로 배우로서의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배윤경은 이번에 야무진 양반집 아가씨가 되어 박은빈과 로운의 로맨스에 아찔한 텐션을 더한다.

무엇보다 봄꽃 같은 화사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신선한 조합에 배우들의 훈훈한 청춘 시너지가 더욱 기대되는 바, '연모' 제작진은 "라이징 스타로 우뚝 선 남윤수, 최병찬, 배윤경이 출연을 확정하면서, '연모'의 꽃청춘 라인업을 완성했다. 박은빈, 로운과 함께 지금껏 본 적 없던 새로운 매력으로 애절한 사랑 이야기에 완성해 시청자들을 찾아낼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연모'는 드라마 '부티 인사이드', '또 오해영' 등 로맨스 연출 장인 송현우 감독이 연출을,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의 한희정 작가가 집필을 맡았다. 올 하반기 방송을 목표로 곧 촬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동희기자

이현은 왕세자 이휘(박은빈)와는 어린 시절부터 친형제처럼 나고 자란 막역지우다. 그간 탄탄한 연기력으로 부지런히 필모그래피를 쌓아오고 있는 남윤수가 이번엔 출중한 학문과 무에 실력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매력까지 더한 무결점 캐릭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저격할 예정이다.

귀여운 4차원 이미지로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최병찬(빅톤)은 카리스마 넘치는 호위무사 '김가운'으로 변신을 꾀한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림자처럼 묵묵히 휘의 곁을 지키는 가운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속내만큼이나 비밀스런 과거를 지닌 사내다. 군령의 충실한 군인이었던 그가 동궁전의 호위 무사가 되었다는 것 외엔 알려진 게 별로 없다. 그렇게 배일에 가려진 과거 호기심을 자극하는 가운데, 휘를 아끼는 휘의 하루를 등적하게 보위하는 등 강렬한 남성적 매력을 예고해 이목이 집중된다.

마지막으로 이조판서의 외동딸 '신소은' 역에는 배윤경이 캐스팅됐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부티가 활활 흐르는 미모의 소유자이자, 누구 앞에서든 기죽지 않고 자기주장을 명확히 밝힐 줄 아는 조선의 신여성. 원

박인비, 올해 첫 대회 1R6언더파 단독 선두...김효주 1타차 2위

'2만km 비행' 이강인, 전술 실패의 희생양이었을 뿐

박인비(33)가 올해 처음 출격 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대회에서 통산 21번째 우승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박인비는 2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즈배드의 아비아라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LPGA투어 기아클래식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6개를 잡아내 단독 선두에 올랐다.

지난해 2월 호주 여자오픈에서 통산 20승 고지에 올랐던 박인비는 이후 2차례 준우승 등 21번째 우승을 이뤄냈다.

올해 초반에 치러진 3차례 대회를 모두 건너뛰고 국내에서 훈련했던 박인비는 기아 클래식이 이번 시즌 처음 출전하는 대회다.

긴 휴식에도 박인비의 샷 감각은 더 날카로워졌다.

그린 적중률이 83.3%에 이르렀고, 그린에서도 27개의 퍼트로 마무리할 만큼 거의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그린을 놓친 보기 위기도 모두 잡아냈다.

전반에는 다소 몸이 덜 풀린 듯 8번 홀까지 1타밖에 줄이지 못했던 박인비는 9번 홀부터 10개 홀에서 5개의 버디를 끌어 담아 단숨에 리더보드 맨 위를 점령했다.

김효주는 대신 한국여자프로골프



후반 들어 비가 내리고 바람까지 부는 어수선했던 날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집중력이 돋보였다.

1년 4개월 만에 LPGA투어 대회에 나선 김효주(26)는 5언더파 67타를 치며 박인비에 1타 뒤진 2위에 오르는 화끈한 복귀전을 치렀다.

2019년 11월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을 마치고 귀국한 김효주는 미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지난해에는 한 번도 LPGA투어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김효주는 대신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투어에 시즌 내내 참가해 2승을 올리고 상금왕을 차지하며 경기력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소중한 자산을 쌓았다.

올해도 초반 3차례 대회는 결장하고 체력 훈련을 병행하며 LPGA투어 복귀에 대비했다.

김효주는 이날 14차례 버디 기회를 만들어 8개의 버디를 뽑아내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다만 아직은 미국 코스가 낯선 듯 보기 3개는 아쉬웠다.

김효주는 "오랜만에 미국에서 경기했다. 주변에서 온통 영어가 들려 처

음에는 좀 낯설었다"고 복귀 소감을 밝힌 뒤 "오늘 아이언은 잘 맞았지만 드라이버는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앞서 열린 3차례 대회에서 모두 10위 이내에 이름을 올린 전인지(27)는 4언더파 68타를 때려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인지는 조피아 포포프(독일), 델리드, 스테파니 메도우(이상 잉글랜드) 등과 함께 2타차 공동 3위 그룹에 포진했다.

양희영(32)이 3언더파 69타를 적어내 우승 경쟁에 뛰어 들 체비를 갖췄다.

세계랭킹 1, 2위 고진영(26)은 1언더파 71타로 무난한 첫날을 보냈다. 허미정(32), 신지은(29)도 1언더파를 쳤다.

후원사를 바꾸고 처음 대회에 출전한 김세영(28)은 이븐파 72타를 제출했다.

1년 9개월 만에 필드에 복귀한 미셸 위 웨스트(한국 이름 위성미)는 9오버파 81타를 적어내 최하위권으로 밀렸다.

9개월 전에 딸을 출산한 위 웨스트는 버디는 1개밖에 잡아내지 못했고 보기 8개와 더블보기 1개를 쏟아냈다.



이강인(발렌시아)은 10000km를 날라와 생소한 포지션에서 45분을 뛰었다. 그리고 참패를 겪은 뒤 다시 10000km를 날라가 스페인으로 돌아야 한다.

과올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25일 7시 20분 요코하마에 위치한 닛산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일전에서 일본 대표팀에 0-3 완패를 당했다. 이로써 10년 만에 열린 한일 친선전은 무기력한 패배로 막을 내렸다.

경기를 앞두고 이강인은 공식 채널을 통해 "어느 팀이랑 하던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최고로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해서 꼭 승리하는 게 항상 우리의 목표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이 하나가 된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필승의 의지를 다졌다.

20살 어린 선수의 의지가 허탈함으로 바뀌는 데에는 4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강인의 활용법을 고민하겠다는 벤투 감독의 선택은 이강인의 제로톱 기용이었다. 선발 명단이 발표됐을 때부터 다소 의문스러웠던 포메이션은 최악의 전반전으로 이어졌다.

한국은 일본의 압박에 막혀 제대로 된 패스를 이어가지 못했다. 제대로 된 패스가 나오지 않고 통패스가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그런 상황에서 173cm의 이강인이 189cm인 요시다 마야와 188cm인 도미야스 다케히로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이강인은 종종 3선 앞에까지 내려와 경기를 풀어주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일본 선수들의 집중 견제로 인해 가로막혔다.

결국 이강인은 전반전이 끝난 뒤 곧바로 교체됐다. 손흥민(토트넘), 황희찬(라이프치히), 이재성(킵)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벤투 감독이 꺼내든 이강인 제로톱 전술은 실패로 마무리됐다.

경기 후 벤투 감독은 "이강인 제로톱은 전술적인 부분이었다. 상대 수비에 균형을 꺾었고 압박이 들어올 때 수비를 끌어낼 수 있었다면 양 측면 윙어들과 남태희가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이 원했다. 이강인 제로톱 전술을 내가 준비했지만 잘 되지 않은 점을 인정한다"며 패착을 인정했다.

벤투 감독은 이강인을 계속해서 대표팀에는 차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활용법에 대해서는 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출장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다. 국가대표가 아무리 선수들에게 명예로운 자리라고 한들, 매년 30시간에 가까운 비행 후 짧은 시간만 뛰고 복귀한다면 안타까움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강인은 소속팀에서도 출장 시간 문제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 지난 레반테와의 경기에서도 이강인은 이번처럼 첫 번째로 교체된 뒤 벤치에서 앉아서 눈물을 글썽이는 장면이 포착된 바 있다.

다시 웃는 모습으로 팀으로 복귀했지만 이번 시즌 내내 제대로 기회를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일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면 선수가 자신감이라도 갖춰 돌아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준비 기간도 짧았던 와중에 시도했던 무리한 제로톱 기용은 20000km를 날라와 전반전만 뛰 선수에게 되려 허탈감만 안기고 말았다.

두산은 왜 국내 좌투수를 내줬나, 그만큼 '주전 1루수'가 간절했다

오재일이 떠난 자리가 너무도 커 보인다. 두산이 병역 혜택을 받은 국가대표 좌투수를 내주면서까지 '주전 1루수' 자원을 데려왔다.

아직 주전 1루수를 찾지 못한 두산의 선택은 내부 육성이 아닌 트레이드였다.

두산은 지난 25일 잠실 라이벌 LG에 좌투수 함덕주, 우투수 채지신을 내주고, 내야수 양석환, 좌투수 남호를 데려오는 2대2 트레이드를 전격 발표했다.

현장에서 만난 두산 고위 관계자는 "주전 1루수를 얻기 위해 실시한 트레이드다. 함덕주를 떠나보내게 됐지만, 즉시전력감인 양석환과 미래 자원인 남호를 영입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두산의 오프시즌 최대 고민은 오재일이 삼성으로 떠나며 공백이 생긴 1루수 자리였다. 이에 김민혁, 신성현, 호세 페르난데스 등을 후보군에 넣고 스프링캠프부터 치열한 경쟁을 유도했지만, 개막을 앞둔 일주일 앞둔 현재까지도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 김민혁, 신성현은 타격

에서 심각한 약점을 드러냈고, 그렇다고 지명타자인 페르난데스에게 풀타임 1루수를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급기야 베테랑 오재원까지 1루를 맡을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던 도중 라이벌 구단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이 들어왔다. LG 차명석 단장이 주전 1루수감인 양석환 카드를 선 제시하며 트레이드를 시도한 것. 대신 반대급부로 좌투수 함덕주를 요구했다. 두산은 고민을 거듭했고, 결국 주전 1루수를 얻기 위해 함덕주를 내주는 결단을 내렸다. 함덕주-양석환 맞교환에 합의한 양 팀은 채지신, 남호 등 어린 투수들까지 더해 최종 2대2 트레이드를 완성했다.

2013년 5라운드 43순위로 두산에 입단한 함덕주는 선발, 중간, 마무리가 모두 가능한 검증된 좌완투수다. 2015년 68경기 7승 2패 2세이브 16홀드 평균자책점 3.65로 두각을 드러낸 뒤 2018년 무려 27세이브를 수확, 그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의무를 해결했다. 지난해에는 마무리로 출발해 9월 선발로 보직을 바꿔 긴 이닝 소화에서

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입증했다.

두산 입장에서 빼어난 손실로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주전 1루수를 향한 갈증이 심했다. 여기에 LG가 선제시한 양석환은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였다.

일단 두산은 기본적으로 우타 자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김민혁, 신성현에게 꾸준히 기회를 줬는데 성장이 더뎠다. 그러나 양석환은 잠실을 홈으로 쓰면서 2018년 22홈런을 때려낸 경력이 있다. 상무 입단을 통해 병역 문제도 해결된 상태. 또한 두산을 상대로 9개 구단 중 가장 높은 타율(.299)과 많은 홈런(12개)을 기록했다.

두산 관계자는 "양석환은 타율에 비해 타점이 상당히 많은 선수다. 찬스에 굉장히 강했던 인상이 있다. 우리 팀 상대로도 잘 쳤다"며 "1루를 볼 수 있는 우타 거포 자원이 절실했는데 양석환 합류로 고민을 해결했다"고 트레이드에 전반적으로 흡족해했다.

함덕주의 공백은 '포스트 함덕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남호로 메운다.

두산이 트레이드 협상 막판 꼭 짚는 남호는 2019 2차 5라운드 45순위로 LG에 입단한 좌완 유망주로, 지난 시즌 1군 6경기를 통해 기대주로 인정을 받았다. 두산은 남호를 향후 선발 자원으로 키운다는 게 획이다.

양석환은 26일 서울 잠실구장서 열리는 두산-LG의 시범경기에 앞서 유니폼을 갈아입고 본격적으로 두산 1루수 훈련을 소화할 예정이다. 함덕주라는 거물급 투수의 반대급부로 베이스맨이 된 양석환이 두산의 주전 1루수 및 우타 거포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만식기자



[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개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 ]

한국수력원자력이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를 이끌어왔습니다  
내일의 에너지를 주도해가겠습니다

- 무한한 태양빛을 전기에너지로 태양광발전소
- 육상과 해상 바람의 힘을 이용한 풍력발전소
- 도시 속 조용한 청정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
- 유기물의 광합작용을 이용한 광양바이오매스발전소(추진)
- 비화산지대에서 24시간 운전가능한 지열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주

# 호반산업·호반건설, '호반써밋 그랜빌'과 '호반써밋 라테라스'

- 호반그룹 건설계열, 오산세교지구에서 2개 블록 총 1,075가구 공급

A2블록 전 가구 4~5베이 설계, Cd-1블록 테라스 타입설계로 수요자들의 선택 폭 넓혀

- 인근 지하철 1호선 오산대역, 공원, 학교용지, 상업지구 등 주거 편의성 우수

- 필봉터널 개통(예정)으로 동탄 2신도시 직접 연결... 동탄신도시 생활 인프라까지 이용 가능

- 4월 5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화) 1순위, 7일(수) 2순위 청약, 당첨자 발표일 상이

호반그룹 건설계열은 경기도 오산세교지구에 공급하는 '호반써밋 그랜빌'과 '호반써밋 라테라스'의 사이

버 견본주택을 26일(금)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이번 공급으로 호반산업과 호반건설은 오산세교지구에서 A2블록 전 가구 4~5

베이 설계와 Cd-1블록 테라스 타입설계를 적용한 아파트를 선보이며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호반산업은 오산세교2지구 A2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9개 동, 867가구 규모의 아파트 '호반써

밋 그랜빌'을 선보인다. 타입별로는 ▲74㎡ 196가구 ▲84㎡A 291가구 ▲84㎡B 100가구 ▲104㎡ 280가구

다. 호반건설은 오산세교1지구 Cd-1블록에 '호반써밋 라테라스'를 공급

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4층, 10개 동, 전용면적 96~153㎡ 총 208가구다. 타입별로는 ▲96㎡ 3가구 ▲99㎡ 3가구 ▲102㎡ 3가구 ▲110㎡ 3가구 ▲113㎡ 123가구 ▲121㎡ 41가구 ▲153㎡ 32가구다.

[분양 일정 및 조건]

분양일정은 4월 5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화) 1순위, 7일(수)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호반써밋 그랜빌'은 4월 13일(화)이고, '호반써밋 라테라스'는 4월 14일(수)이다. 계약은 4월 26일(월)부터 29일(목)까지 4일간 진행된다.

'호반써밋 그랜빌'과 '호반써밋 라테라스'는 공공택지 물량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호반써밋 그랜빌'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209만원이고, '호반써밋 라테라스'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464만원이다.

'호반써밋 그랜빌'과 '호반써밋 라테라스'의 1순위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한 세대주에게 주어진다. 또한, 각 단지별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도 가능하다.

'호반써밋 그랜빌'과 '호반써밋 라테라스'가 들어서는 오산세교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과거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다.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이며, 입주 후 실거주의무기간은 없다.

■ 수도권 숨은 알짜 택지지구 오산세교지구... 동탄신도시 생활 인프라까지 모두 누려

오산세교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것은 물론 다양한 개발 소식까지 있어 수도권의 숨은 알짜 택지지구로 평가받고 있다.

'호반써밋 그랜빌'과 '호반써밋 라테라스'는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오산대역 이용이 편리하고, 단지 인근에 서울 사당역과 강남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이 있다. 봉담동탄고속도로(북오산IC)와 경부고속도로(오산IC)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도 편리하다.

동탄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생활인프라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오산세교지구와 동탄2신도시를 직접 연결해주는 필봉터널이 개통 예정에 있어 동탄2신도시의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오산도심권과 이어지는 금오터널도 예정돼 있다.

주거환경이 쾌적해 아이 키우기에 좋은 여건을 갖췄다. 오산 물향기 수목원, 고인돌공원 등 오산세교지구에는 다양한 공원이 있으며, 단

지 인근에는 수정초, 정원유치원, 학교용지도 위치해 있다.(블록별 상이) 상업지구와 홈플러스 등 생활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또한, 오산가장일반산업단지, 세마일반산업단지, 동탄테크노밸리,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등으로 출퇴근이 용이해 직주근접 단지로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 전 가구4~5베이 설계, 테라스 타입 설계 아파트 동시 공급!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힌 '호반써밋'

'호반써밋 그랜빌'은 남향위주로 단지를 배치해 통풍과 조망권을 확보하고 4~5베이(Bay) 설계(타입별 상이)를 적용했다.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공간 구성이 가능하고, 가사 동선을 배려한 다양한 수납공간도 제공된다.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시어터룸 등 입주민들의 생활에 만족을 더해줄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제공할 계획이다.

'호반써밋 라테라스'는 단독주택의 독립성과 아파트의 주거 편의성을 함께 갖춘 테라스 타입의 설계가 적용됐다. 단지는 전 가구 남향으로 배치했고, 개별 테라스(타입별 상이)를 도입해 주거 가치를 높였다. 또한, 주방가구와 마루, 타일 등

에 다양한 고급 옵션(유상)을 추가했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춰 편의성을 강화했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피트니스센터, 키즈카페, 골프연습장, 다목적실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호반써밋 분양관계자는 "이번 오산세교지구에서의 '호반써밋' 공급이 오산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주거 형태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두 단지 모두 오산세교지구 핵심입지에 위치해 생활이 편리하고, 우수한 상품성과 합리적인 가격이 돋보이는 만큼 청약에서도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호반써밋 그랜빌'과 '호반써밋 라테라스'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560-1번지 일원에 마련돼 있다. 입주예정일은 '호반써밋 그랜빌'은 2023년 7월, '호반써밋 라테라스'는 2023년 4월 예정이다.

### <사업개요>

A2블록  
단지명 호반써밋 그랜빌  
위치 경기도 오산세교2지구 A2블록  
공급 규모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9개 동, 전용 74~104㎡

총 867가구

청약일정

특별공급 : 2021.04.05.(월)

1순위: 2021.04.06.(화)

2순위: 2021.04.07.(수)

당첨자 발표 : 2021.04.13(화)

정 당 계약 : 2021.04.26(월)~04.29(목)

Cd-1블록

호반써밋 라테라스

위치

경기도 오산세교지구 Cd-1블록

공급 규모

지하 2층~지상 4층, 10개 동, 전용 96~153㎡

총 208가구

청약일정

특별공급 : 2021.04.05.(월)

1순위: 2021.04.06.(화)

2순위: 2021.04.07.(수)

당첨자 발표 : 2021.04.14(수)

정 당 계약 : 2021.04.26(월)~04.29(목)

견본주택 위치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560-1번지 일원

입주 예정

호반써밋 그랜빌(A2블록): 2023년 7월

호반써밋 라테라스(Cd-1블록): 2023년 4월

김남주/기자

